딸아들 구별 말고,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02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고금리에 가계·기업 빚 눈덩이… 韓 불황그늘 짙어진다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 주담대 증가로 가계대출 지속 늘어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3위로 높아 한은 "성장세 둔화·경기침체 우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세계 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 돼 부실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면 경제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국제금융협회(IIF)에따르면우 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은 3분기 100.2%로 주요 61개국 중 4위로 집계됐다. 스위스 (125.5%), 호주(110.0%), 캐나다 (102.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 난 2분기에도 우리나라는 61개국 중 4 위를 차지했다.

◆ GDP 대비 가계대출 100.2%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 분기(100.5%) 100%를 넘어선 뒤 2021 년 3분기(105.7%) 최고점을 찍고 떨어 지는 추세다.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 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줄어서가 아니라 분자인 GDP가 성장세를 보여서다. 한



유토이미지

국은행에 따르면 GDP는 지난해 말 -0.3%에서 1분기 0.3%, 2분기 0.6%, 3 분기 0.6% 성장했다.

가계대출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지난 4월 2조2000억원 증가 한 가계대출은 6월 5조8000억원, 8월 6 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 유는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택담 보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과 6월, 8월은 모두 가계대출 증가액보 다 주담대 증가액이 많았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였음에도 주담대가 늘며 가계대출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이를두고가계부채비율 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

한다. 한은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 어설 경우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적으 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제한돼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주담대에 쏠려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 지는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부실이 확대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 취약기업 부실 가능성 ↑

기업부채도 지켜보던 수준을 넘어섰 다. 우리나라의 3분기 GDP 대비 비 (非) 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26.1%로 1 년전(120.4%)과비교해5.7%포인트늘 었다. 홍콩(267.9%)과 중국(166.9%)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는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은 행의 대출을 선호하면서 증가했다. 금 융권 관계자는 "금리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간 고금리로 운영되는 회 사채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 에 단기로 기업대출을 받는 비중이 늘 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논술고사 마친 수험생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GM·듀폰 등 美 4개社, 한국에 1.5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 訪美 중 투자신고 연간 4.5조 수출확대 효과 예상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첨단 기업 4곳이 한국에 1조5000억원(11.6억달 러)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윤석열 대통 령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 을계기로, GM·듀폰(Dupont)·IMC·에 코랩(Ecolab) 등 4개 기업이 이같은 규 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했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APEC CEO 정상 회의 계기, 윤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 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 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

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GM의 투자계획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글어 내는 성과로 이어 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듀폰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 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 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 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은 100명 이상이다.

이는지난2022년9월 윤대통령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 로, 한국을 듀폰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 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듀폰은 지 난해9월 '북미지역투자신고식 및투자 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 소재 EU V용 감광제·화학기계 연마 패드·패키 징 R&D센터 및 제조시설 증설에 투자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 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공 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 로, 이는 IMC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태 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 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 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 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 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 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 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PEC 마친 尹, 민생 점검하고 경제외교 이어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일 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오는 20일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순방길 에 오른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전날(18일) 늦은 밤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교역·투자 및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분야별 '연결 성'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관한 한국의 기여 방안 을 비롯해 APEC 차원의 스마트 모빌 리티특별이니셔티브와공급망조기경 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대통령은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 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 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 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 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인적 교 류활성화, 에너지 안보 기술 관련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IPEF에서는 공급망 위기 시 발동되는 각국 고위급 회의체인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 등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타결됐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D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與 "野, 정부 예산 깎고 이재명 예산 늘 려… 무소불위 폭주" /사진 뉴시스
- ▲ 與, 이준석 지지자 연락망 구축에 "당 전열 정비ㆍ화합에 좋지 않아"
- ▲ 민주,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문구 삭제 … "당 아닌 업체 제작"
- ▲ 민주 "아동학대・폭력 여전… 정부 역 할 강화해야"



- ▲ 신원식 "북, 일주일 내지 늦어도 30일 전에 정찰위성 3차 발사" /사진 뉴시스
- ▲ 외교장관, 캐나다·멕시코 회담··· 북 인 권문제 지원 당부

내년 봄, 1인가구 1000만 시대… 4인가구 10년간 100만개 ▶



메트로경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DX, 생존위한 필수적 혁신 4차혁명 산업계에 '이정표'

메트로경제는 오는 11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란 주제로 '2023 뉴테크놀 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업무 전 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제조업에서 스 마트공장을 구축이나, 사무공간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 동화)가 대표적이다.

DX는 산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혁신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단순 업무나 위험한 작 업을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작업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 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DX를 생존 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하는 이유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열풍도 DX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LLM(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더 쉽고 많은 업 무 분야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DX를 추 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ESG 경영을 위해서도 DX는 필수적인 과제로 손꼽힌 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아끼는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 데,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 소모와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DX는 새로운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러 기 업들이 DX 솔루션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업에 DX를 적용하고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DX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일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다가, 인력 재배치 등 경영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하는 탓이다. 비용과 규제 어려움이나 아직 방법을 모르는 사례도 적 지 않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DX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 해왔는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DX 전환 사례와 서비스를 살펴 보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산업계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 행 사 명: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시 : 2023년 11월 22일 오후2~5시

■ 주 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기조연설 :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연 :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주

의: 제9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 문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

분실공고

분실내용: 분양계약서 분실

동작협성휴포레시그니처 상가 104호 서울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우)07074

소유주: 김혜민

2023년 11월 20일

행안부, 1인가구 수 992만개 전년 971만 대비 20.1만 ↑ 전체가구 중 1·2인가구 66% 3인가구 10년간 34만개 ↑

국내 1인가구수가 반년쯤후 역대 처음으로 1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전 체가구5곳중2곳이1인가구였 고 국민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 하고 있었다. 또 아이를 갖지 않 는 추세 속에 2인가구 역시 크게 늘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인가구(세대) 수 는 992만 개를 넘었다. 전체 가 구(2369만 개)의 41.0%이자 전 체 인구(5135만명)의 19.3%에 달했다. 둘다 역대 최고다.

인구는지속적으로줄고있는 반면 1인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 다. 한편 전체 가구 수도 완만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난 1970년대 산아제한 등 정부 주 도 가족계획 홍보물.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4인가구 등의 수가 내림세인 데 반해 1인 가구가 급증한 영향이다.

1인가구는 1년 전(971만 명) 에 비해 20만1000개 증가했다. 월평균 1만6800개 불어난 흐름 이 이어진다면 향후 5개월 내 8 만4000개, 6개월 내 10만 개증가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따 라 내년 4월이나 5월쯤 1인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

여기에 2인가구(10월 584만

개)까지 합하면 1577만으로, 전 체가구3곳가운데2곳(66%)이 1 또는 2인가구다. 1・2인가구는 10년 전인 2013년 10월(683만 •412만)과 비교해 각각 305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된 모습 이다. 또 이 같은 행안부 통계에 는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지 않는 추세도 담긴 것으로 추정

지난 10년간 3인가구 역시 적 게나마증가(34만개)했으나4인 가구는 413만에서 316만으로 100 만 개 가까이 줄어들었다. 5인가 구도 40만 개 이상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8년 10월만 해도 4인가구 수(426만)는 2인 (354만)・3인(354만)보다 많았 다. 당시 1인가구는 598만 개로 전체 가구의 31.6%에 그친 바 있다.

15년간 전체 가구 수는 1인가 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 및 신축 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500만 개 가까이 늘었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있다. 전국 인구는 2008년 이후로도 10년 남짓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 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에 전국 평균(41.0%)을 넘는 44.5% (447만 가구 중 198만)가 1인가 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거주민(949만 명)의 21.1%가 혼자 살고 있었다. '젊은 도시' 세종은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전체 가구의 34.7%, 도시 인구 의 14.4%만이 1인가구였다.

지난달 국내 6인가구 수는 14 만5000, 7인가구는 3만2000, 8 인가구는 8500, 9인가구는 2600, 10인이상 가구는 2500개 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민센터서 행정전산망 작동 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 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 행정전산망인 '새올'과 사회보장통합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 인하고 있다.



'말로만 신사업' 주가띄운 상장사 전면조사

금감원, 신사업 추진현황 사업목적 추가 233개사 중 55%, 129개사는 추진안해 회계처리 적정성 집중점검

감독당국이주가부양등을위 해 '말로만' 신사업에 진출한 상 장사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 선다. 2차 전지 등 증시에서 인 기를 끌었던 테마 신사업에 진 출하겠다고발표한상장사가운 데 절반 이상은 추진 내역이 전 혀 없었고, 일부 불공정거래도 의심되면서다.회계처리부터불 공정거래 혐의, 자금조달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19일사업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 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 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추진현황실태분석을실 시한 결과, 주요 테마업종을 사 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

개사 가운데 55%인 129개사의 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우 추진내역이 전혀 없었다. 주요 테마는 ▲메타버스 ▲가 상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이

금감원 회계감리1·2국은 신 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회계 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129개사 중 이미 심사대상으 로 선정된 14곳은 미추진과 관 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 확 인과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 계처리적정성을위주로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감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회계분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 사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대상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가발견되면회계처리위반 등을 적극 심사할 예정이다.

조사1~3국은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 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 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획조

이미 허위 신사업 추진과 관 련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 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 수했고, 다른 기업에 대한 모니 터링도 강화한다. 향후 신사업 을 발표하는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 하고, 이상매매에 대해 신속하 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시심사실은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경우과거발표한신사 업은 진행했는지 등을 정확히 작 성했는지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 조달과 관련해 실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이 과정 에서 불공정거래나 허위 회계처 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이 나 오면후속조치를신속히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추진 기업 중 하나인 A사의 유상증자 건에 대 해 과거 신사업 관련 조달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내 '민간 할랄인증' 인도네시아 수출 OK

인니 할랄인증청-한국 기관 할릴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

인도네시아로 농식품을 수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국 내민간할랄인증만으로인도네 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현지 시간)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 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 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 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자국으로수입・유통되 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 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 정으로, 양국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 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2022 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 부당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

'결백-실형' 평행선… 사법리스크 장기화 되나

〈이재용 회장〉

(給)

檢, 징역 5년에 벌금 5억 구형 "합병 통한 공짜 경영권 승계"

이 회장, 결백 주장··· 선처 호소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리스 크장기화 우려에 결국 감정을 추스리 지 못했다. 징역 5년형을 구형받은 후 떨리는 목소리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지방중앙지법에서 열린 '부 당합병·회계부정' 재판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 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주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 는 의혹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 감사 법 위반, 배임 등 혐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원들도 적지 않은 구형을 받았다.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 억원, 장충기 차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공짜 경영권 승계'에 불과하다"며,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주주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 하며, "기업가로서 모든 역량을 온전 히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 회를 달라"고 말했다. 회사를 위해 헌 신한 다른 피고인들을 선처해달라고 도 덧붙였다.

◆벌써 8년, 10년 넘기나

이 회장은 8년 가까운 시간 법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처음 '국정농단' 사건으로 소환돼 2021년 실형을 확정하며 재판을 끝내 긴 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사법리 스크에 빠졌다.

삼성도 그동안 혁신에 어려움을 겪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폴더블 혁신 등으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작시급한 과제였던 미래 전략 수립과 지배 구조 개편 등에서 지지부진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유례없는 '빅딜'기회까지 맞았지만, '의미있는 M & A'에 실패한 이유도 이 회장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 판 대부분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해 명했다. 106차례 중 95차례나 직접 자 리를 지켰다. 공판에는 변호인만 출석 해도 되는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 재 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끝 내기 위한 진심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 해 사면된 이후에도 그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풀이 된다"며 "굳이 적극적으로 출석한 이유 도 직접 증언을 해야 재판을 최대한 빨 리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결국 이 회장 사법리스크는 10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야 1심이 끝났고, 2심과 대법원까지는 그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어서다.

전망도 부정적이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뚜렷한 증거 없이 적지 않은 구형이 나오면서 1심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항소심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뚜렷한 증거 없어… 승복 관건 대법원 판결 시 수년 이상 소요 재계 "韓 경제 동력 잃을 수도"

그나마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조 기에 해소하기 위해 결과에 승복할 가 능성은 높다. 다만 이 회장이 이번 재 판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정농단'으 로 실형을 살았던 만큼, 실형이나 과 도한 형량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기회 호소, 왜?

이회장이 앞으로도 수년간 재판을 이어가게 되면 '뉴삼성' 선언도 더욱 미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재계 에서는이회장이故이건희선대회장 3주기와회장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 운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해왔 다. '신경영선언'후 30년만, 2010년 '5대신수종' 발표이후에는 13년만이 다. 이 회장이 2018년 '반도체 비전 2030' 등 미래 투자 방침을 선언한지 도 5년이나 지났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 제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삼성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중소 기업들까지도 이를 통해 미래 투자에 나선다는 것.

당장 현안도 산적해있다. 반도체 미세공정 난이도 증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경쟁 업계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미중무역 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 변화로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삼성성장 동력인 오너 경영에 따른 빠른 의사 결정과 전략 변화도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면 많은 기업들도 이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이재용 회장이대외 활동을 늘리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기회를 달라거나 선처 를 호소한 이유도 처벌보다는 경영 공 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1면 '고금리에 가계·기업···'서 계속

〈국가별 GDP대비 가계부채〉

GDP대비 가계부채		
125.5		
110		
102.9		
100,2		
95.2		
91.5		
78.5		
73.2		
67.8		
64.7		
62.7		
54.6		

단위:%

/국제금융협회

기업대출 비율 5.7%p ↑ "일부 디폴트 위험 노출"

다만기업대출비율이 1년전보다높아 진 나라는 34개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 다. 우리나라는 러시아(68.2→81.6%)와 중국(158.3→166.9%)에 이어 가장 큰 폭 으로 증가했다. 고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설명 이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0일 기준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A - 등급과 A+ 등급간 금리차는 61.9bp(1bp=0.01%포인트)이다. 2017년 2월(71.7bp)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BB-등급과 AA - 등급도 63.7bp 차이가난다.

이 경우 고금리가 지속돼 금융기관들 이 민간부문 대출을 줄이면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대출 여건이 더 빡빡해지면 차입비용이 상승해 일부 기업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며 "기업대출로 부실은 잠시 유예될 수 있지만,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DK! 기업투자 D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중저가폰·통합요금제, 통신비 낮추기 속도… 실효성은 '글쎄'

애매한 단말기 가격에 절감 미지수 통합요금제, 파격적 가격 아닐수도 KT, 40만원대 '갤럭시 점프3' 출시

정부, 내년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30GB이하 소량, 데이터양 세분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사는 안모씨 (33세)는 지난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했다. 이에 매달 통신비로 6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만 최근 5G 속도까지 느려지고 있어 손해가 크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 운데 실효성 비판에 직면했다. 단말기 에 상관없이 LTE 요금제 가입을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케 하고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 등을 대 안책으로 내놓았지만, 통신비 절감 효 과가 유의미하게 클지는 미지수라는 지 적이다. 최근 5G 품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LTE 요금제와 중저가 단 말기가 파격적인 가격대도 아니라는 비 판이다. 다만, 정부의 새로운 통신비 대 안책인 3만원대 5G 요금제는 효과를 발 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합요금제·중저가 단말기, 애매한 가격 '글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 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신 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 안' 후속조치다. 이번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은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 중저가폰 활성화 ▲최저 3만원대 5G 요 금제를 출시 등이 있다.

문제는 통합요금제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5G 품질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LTE로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초당 896.10Mbps로 LTE 다운로드 속도 (151.9Mbps)의 6배를 넘는다.

특히 통합요금제의 가격도 파격적인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통 3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PRU)이 떨어지 고 있는 가운데 통합요금제로 경쟁을 펼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

실제 이통3사의 3분기 ARPU는 ▲S K텔레콤 2만9913원 ▲KT 3만3838원 ▲LG유플러스 2만7300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개 분기 연속 ARPU가 3만원을 하회하며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KT는 13개 분기 만에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였으며, LG유플러스는 8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또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가격으로 3~4종이 나올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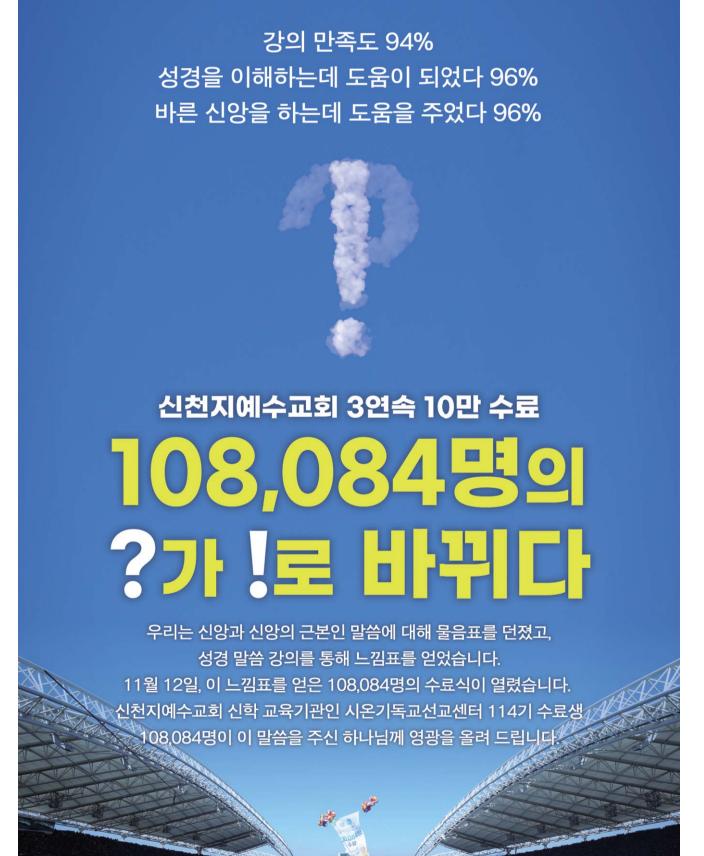
과기정통부는 2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하는 사전예약기능을 내년 1분기 내도입한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정부 발표 후 KT와 협업한 40만원대 갤럭시 점프3가 10일 공개됐으며, 갤럭시 S23 FE도 연내 출시가 전 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저가폰 중심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저 가폰이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애매하다는 평가에서다.

실제 삼성전자는 저가라인업을 대폭 정리하고 100만 원대의 폴더블 팬에디 션(FE)과 같은 중저가라인업을 넓히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으 로 저가 라인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 졌다. 대표적인 저가 기종인 A7 시리즈 는 상위 10위 순위권에도 오르지 못하 면서 더이상 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또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엔 3만원 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4만원대 후반 요금제부터 시작한다. 또 30GB 이하소량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저렴한요금제를 다양하게 만든다. 이뿐 아니라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요금제 대비최대 2배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이용자들의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응물) 신천지예수교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정부, 미래 주파수 확보 경쟁 국내 이통3사 반응 '미지근'

국내 통신사 5G 품질 고도화 등 포기 미래모바일 등 여러 사업자 도전 전망

정부가 미래 이동통신 실현을 위한 6G 후보주파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는 20일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개최되는 가운데우리 정부는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중책까지 맡았다. 다만, 국내 통신사들은 5G 품질 '고도화'는 물론 28㎝ 주파수도 포기하면서 정부는 새 주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 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개최된 다고 밝혔다. WRC-23은 국제연합(U 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 파 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국 제 주파수 분배와 국가 간 전파간섭 방 지기준 등을 포함한 전파규칙(RR)을 개정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 으로 추진했던 6G 비전과 6G 표준화를 위한 ITU 표준화 절차 및 명칭(IMT-2030)이 최종 승인됐다. 이는 6G 이동 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을 결정하 게 될 WRC에 앞서 국제 표준화 초석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박윤규2차관은 "우리나라가 ITU 전파통신부문 지상통신 연구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은 세계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과 리더십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내 통신사들은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은 5G 286 주파수도 포기 한 상황이다. 286는 주파수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사업 모델은 많지 않아 수익성이 보장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8 (此 주파수의 새 주인을 찾는다.

오는 20일 정부는 이동통신3사(SK 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한 5G 286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 (제4이동통신)를 본격적으로 모집한 다.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 게 점치지만, 이미 신청하겠다고 선언 한 미래모바일 등 여러 사업자가 도전 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그동안 축적된 국제활동 경험을 발휘해 6G 후 보 주파수 발굴 의제 논의 등 주요 의제 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與 혁신위 "전략공천 원천 배제해야"… 당 지도부 '난감'

'상향식 공천' 통한 공정경쟁 제안 대통령실 인사 '낙하산 논란' 차단 당정 관계 수평적으로 회복 의도

당 지도부, 전략공천 포기 어려워 '100% 경선' 실현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 시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 망이다.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계 (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압 박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데다, '100% 경선'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 렵기 때문이다.

19일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 위는 지난 17일 4호 혁신안으로 모든 지 역구에서의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비교적 당선이 용이한 지역에 출마해 '낙하산 공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차단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 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라고 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에 대해 "위에서 내려오는 공천보다 당원과지역구 민심을 가장 큰 틀로 하는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위의 권고대로 중진·친윤 인 사들이 물러난 자리를 경선으로 채워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 로 보인다. '100% 경선은 중진 의원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혁신위 원은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위가) 중진 들이 희생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는 4호 혁신안 발표 당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 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과거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기도 했 다. 또 김 전 대표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변 권력이 희생해야 한 다"며 중진·친윤계의 용퇴를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모든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지역구 경선'을 의미한다. 중앙당 공천 기구에서 출마자를 결정하지 않고 지역구 경선으로 결정하기때문에 '상향식 공천'이기도 하다.

문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총선 전략 중하나인 전략공천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은 총선에서경선과 전략공천을 병행해왔다. 통상경선은 그지역구에서 활동해온 이들이나 현역 의원이 나서고, 경선과 관련된세부 규칙을 당에서 정한다.

반면 전략공천은 상대방이 어떤 후보를 내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후보를 내놓기에 지역 연고나 활동 여부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략공천을 '낙하산 공천'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 '맞춤 후보'를 내놓고, 해당 지역구를 '격전지'로만들어 화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또 경선은 출마를 희망하는 복수 후 보가 있는 지역구에서 가능하다. 열세 지역이거나 강력한 야권 후보가 있을 경우엔 경선이 쉽지 않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인재영입을 추진 중이다.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야한다면 기존 당협위원장에 비해 지역활동 기간이나 연고가 약한 인사들은합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험지출마 권고 이행이 전제돼야 효과적이다.전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할 경우 현역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혁신위의 권고가 이행돼야만 공정한경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꺼내들어 당주류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위의 권고는 아직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일부 당사자들은 거부 의 사를 밝혔다. 만일 일부 중진·친윤계 등 이 권고를 받아들여 험지에 출마하더라 도, 새로운 지역에서 경선을 뚫어야 한 다는 데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결국 '100% 경선'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 려운 조건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非명계, 세 확장 본격화… 청년 정치인과 당 지도부 비판

원칙과 상식, 청년 간담회 열어 조응천 "당내 민주주의 역대 최악" 최근 논란된 '청년 비하' 현수막 비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4 인방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 '원칙과 상 식'의 세 확장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원칙과 상식은 첫 공식 행사로 당 안팎 의 청년 정치인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 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가감 없이 쏟아졌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4명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칙 과 상식 1. 민심소통 : 청년에게 듣는 다'란 간담회를 열고 청년 눈높이에서 진단한 민주당의 현실과 혁신 의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엔 하헌 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양소영 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대학생위원장 등을 비롯한 당 안팎의 청년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예상대로이번 간담회에서는 당지도 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 은 "당내 민주주의가 역대 최악"이라면 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친박(친박근혜) 패권, 친명(친이재명) 패권까지 다경험해봤는데, 친명패권이 가장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론했다.

이어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제"라며 "갑론을박하면서 필터링 이 이뤄지면서 정당 결정의 오류가 수 정되는 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최근내놓은현수막시안이 청년세대비하논란을불러일으킨 것을 두고도 "실제 독임제 행정관과 비슷한 패권이 강한 유일체제다보니 무오류라 는 편견에 빠져있다"며 "잘못되면 사과 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얘기하면 듣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논란이 된 '청년 비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거대 담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때) 탈모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이 있었는 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며 "지난 대 선 때는 민주당이 뭘 공약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국가비전을 얘기하지 않아서, 자질구레한 얘기를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나를 위해 이재명'이 슬로건이었는데, 당시 의원님들은 '2030은 국가비전이나거대담론보다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며 2030이 타깃이라고 했다"며 "2030이 개인 이기주의에만 매몰됐으면 공정과 상식은 뭐고, 젠더갈등은 뭐고, 반중정서는 무엇이겠나. 그게 다 거대 담론인데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수막도 대선때 있 었던 '나를 위해 이재명' 슬로건의 연장 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현수막에 경 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당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 다. 경제·정치는 잘 모르고 나만 잘 살 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행정 전산망 먹통에 與 "송구한 마음" 野 "尹 직접 사과해야"

與 "복구 총력··· 근본 대책 마련" 野 "안내문자 없이 각자도생 권해"

여야는 19일 최근 행정 전산망의 오류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송구한 마음"이 라면서 관계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 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드리라" 고 요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 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 련에 나서겠다"며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 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 속히 나섰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장애 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문가들이 서비스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다행히 18일 오전부 터는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 상 태"라면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 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 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 될 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 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부라부라 귀국했다"며 "디지털 플랫폼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 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 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 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 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 고 질타했다.

/서예진 기자

오늘 영국 국빈방문・프랑스 순방 출국

›› 1면 'APEC 마친 尹'서 계속

윤대통령은 19일용산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내각으로부터 행정 전산망마비 등 국내 현안과 경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민생현안을 점검했다. 앞서 윤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한바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23일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신시장 확보 ▲첨단 산업공급망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에 중점을 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

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 문 기간 국빈 공식 일정을 비롯해 한영 정상회담,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 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 영국 왕립학 회가 개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 기술 미래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영국 국빈방문 일 정을 마치고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 동해 파리 주재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 IE) 대표들과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 산 유치를 위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 국 국경일 리셉션을 갖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 대한민국의 건설문화 혁신

SH가 잘하는 일입니다



설계도면 공개

원가내역서 공개와 더불어 SH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

분양원가 공개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등 총 71개 항목을 모두 공개

고품질 주택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여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 추진

자산 공개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한 자산의 전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경영 실천

후분양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 실제 주택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직접시공제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여 책임시공 강화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고품질 주택 건설 선도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로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변 시세의 40~60% 가격으로 주택 공급

사업결과 공개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 수익 재투자 및 향후 개발방향 공개

적정임금제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숙련 근로자를 유입,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택 품질 제고

사전예약제

후분양시점(건축공정률 90%)에 본청약을 진행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대출 기간과 중도금 부담을 경감

∼ 서울특별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삼성생명, 3분기 누적 순익 1.5조… 생보사 자존심 지켰다

신계약 CSM 12.2% 증가로 3분기 순익만 4756억 기록

한화·교보생명은 실적 악화 고금리에 FVPL 손실 잇따라

삼성생명이 국내 1등 생명보험사의 자 존심을 지킨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은체면을 구겼다. 고금리에 FVPL(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손실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생보사 '빅3' 가운데삼성생명은 유일하게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원을 넘겼다. 삼성생명의 3분기 누적 순익은 1조 4497억원으로 전년 동기(8395억원) 대비 72.7%(약 6000억원) 급증했다.

3분기만 놓고 봐도 삼성생명은 4756 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7.7% 증가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 진(CSM)은 9564억원으로 전년 동기 (8522억원) 대비 12.2% 상승했다.



삼성생명 본사 전경.

보험영업 부문에서 성장지표로 활용 되는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3 분기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7009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보장성 신계약 APE는 전년 동기 4582억원 대 비 33.4% 증가한 6113억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신시장 경쟁 력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신계약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 포 트폴리오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생보사의 자존심을 지킨 가운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3분기 누적 순익은 한화생 명8448억원, 교보생명6029억원으로 전 년 대비 각각 39.6%, 14.2% 감소했다.

한화생명의 3분기 순익은 357억원으로 전년 동기(5337억원) 대비 93.3% 급감했다. 심지어 교보생명은 3분기 329억원 순손실을 봤다. 지난해 3분기 1204억원의 순익에서 오히려 적자로 전

환했다.

생보사의 실적 악화 원인으로는 올해 IFRS17과 함께 IFRS9(금융자산 회계기준) 도입으로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FVPL이 지목된다.

기존 IAS39 기준에선 수익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 증권의 가치평가가 순익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IFRS9에서는 증권이 FVPL로 분류돼 평가익은 순익에고스란히 반영된다. 따라서 FVPL 평가 손익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의 규모가 큰생보사들은 FVPL 규모가 크다 보니 금리 변화로 인한 변동성에 크게 노출 됐다. 업계는 보험부문이 아닌 대외적 인 요인으로 투자영역에서 손실을 크게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보 험판매 실적이 양호했으나 자산 및 투 자부문의 평가손실이 실적 악화로 이 어졌다. 한화생명의 올해 3분기 신계약 APE 는 2조565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743억원) 대비 86.6% 증가했다. 보장 성 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보장성 APE 는 118% 증가한 1조7932억원을 달성

교보생명도보험부문에서는 328억원의 이익을 거뒀으나 FVPL 손실 영향으로 투자부문에서 768억원의 손실을 봤다. 평가손실 1599억원, 처분손실 1189억으로 이 부문에서 총 2788억원의 손실이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으로 채권과 투자의 평가이익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고금리에 FVPL 손실 영향으로 FVPL 비중 높은 생보사들이 실적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 때문에 보 험사들은 투자 및 채권 부문에서 평가손 실을 봤을 것"이라며 "금리 같은 대외적 인 요건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설 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에 '급락'

3~6개월 내 동시 승인 가능성 높아 美 긴축종료 예상 등 상승동력 충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란 이야기 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초 승인 시점을 내년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64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3만78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 가능성 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계류 중인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브라질 가상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면서 연내 현물 비 트코인ETF를승인하지않을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내 상장기대가 높았지만,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이야기가 나오자 차익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시장에서는 올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시기를 내년으로 전망 해,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충 분하다는 분석이다.

스티븐 쇼엔필드 마켓벡터인데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3~6개월 내동시에 승인될 것"이라며 "SEC가최근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하는 대신의견을 요청했고, SEC는 최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SEC는 내년 1월 10일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 부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을 내려야 한다" 며 "구체적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수개 월 안에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 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그널과 내 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 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비트 코인 가격은 5000달러에 불과했지만 12 월 말에는 2만7000달러까지 상승하면 서 8개월 만에 440%가 상승한 바 있다.

4년 주기로 이뤄지는 비트코인 반감 기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 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총량에 다가 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점점 감 소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 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40%가량 상승하면서 잠재적 호재로도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을 보여줬다"며 "현재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

서울 집값 26주째 상승… 매수 관망세

'목동 대림' 한달 새 5000만원 ↑ 정비사업 기대 단지 위주 거래 매수심리는 2주 연속 하락세

최근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이 이어 지는 가운데 매매가격이 26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9일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관망세를 보이며 전주(0.05%)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26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 (0.08%→0.10%)가 성수·금호동 중소형, 광진구(0.08%→0.07%)는 자양·광장동, 용산구(0.11%→0.10%)는 이촌·산천동 주요단지, 동대문구(0.12%→0.10%)는 제기·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09%→0.08%)가 염창·화곡동, 양천구(0.09%→0.11%)는 목·신월동 역세권, 영등포구(0.09%→0.11%)는 당산·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남권의 경우 강동구(0.13%→0. 12%)는 고덕·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오 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단지 및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 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매수·매도자간 희망가격 격 차로 거래심리가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 로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대림'은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2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9월 매매가격(12억원) 대비 5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73㎡가 14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8월(14억 4000만원) 대비 15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했다.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7.6)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 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 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대환 기자 kdh@

정부, 진료비 게시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 업무협약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19 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반 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 위원장 외에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 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 석,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 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반려동물의료서비스수요가확

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 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 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 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 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 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농식품부장관과 김주현 금융 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라며 "농식품부와 금융위 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근기자 skc8472@

K-배터리, 전기차 R&D 1.8조 투입… "위기를 기회로"

〈삼성SDI·LG엔솔·SK온〉

경기침체로 전기차 수요 위축 영업익 감소에도 투자방침 지속 "고객사 니즈 반영 기술개발 주력"

성장가도를 이어가던 배터리업계가 전기차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는 모양 새다. 그럼에도 국내 배터리 업계는 투 자 속도 조절은 물론 연구개발(R&D) 에 집중하며 더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한 미래를 준비 중이다.

19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 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올해 상반기 예측한 1484만대에 비해 107만대 줄어든 1377만대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평균 성장률도 기존 36.4%에서 30.6%로 소폭 하향조정한 수치를 발표했다.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판매 대수가 줄어드는이유는 고금리·고물가로 대변 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기차는 물론자동차를 구입하는



SK온이 지난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공개한 전고체배터리 개발품. SK온은 2026년 초기단계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고분자-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등 두 종류의 전고체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할부로 제품을 구매 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은 소비 위 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럽발 전기차 구매 축소 움 직임이 속도가 붙으면서 한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는 막지 못할 전망이라는 분 석도 나온다.

실례로 상반기 13만7919대의 전기차 가 판매된 프랑스는 탄소배출량을 기존 보조금 기준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국 시장마저도 중국이 전기차 시장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겹쳐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한몫을 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GM은 내 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40만대 생산계획 을 철회했고, 포드의 경우는 120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미뤘다. 이 밖에 폭스바겐와 테슬라와 같은 완성차 업체도 공장 착공 시점을 연기했다.

그럼에도 배터리업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자세와 수주 사업이기때문에 영업의 감소는 있어도 당장 '보릿고개'를 걱정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인한 배터리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도 배터리 사들은 R&D 투자 부분은 오히려 더 늘리는 중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은 등 3사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사의 R&D 비용은 총 1조 7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규모다. 매출액에 대비해도 3사의 R&D 비용 증가 추세는 뚜렷했다.

삼성SDI는 R&D 누적 투자금이 3사 중 가장 많았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R&D 비용은 8364억원으로 전고체 배

터리 양산 시점은 2027년으로, LFP 소재 개발 시기를 2026년으로 제시하고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7304억원을 R&D에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동기 6340억원과 대비해 15.2% R&D 규모를 늘리고 차세대 고용량·고 안전성 소재 개발과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비롯해스마트팩토리 사업확대에 자금을 투입한다.

SK온의 R&D 비용은으로 올해 1~3분기 2207억원을 지출했으며 2025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9년 양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매진 중이다.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생산 능력 확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할수 있다"며 "탄소중립 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고객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시간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車, OECD 교통포럼서 '셔클' 서비스 선봬

〈수요응답형 교통 플랫폼〉

수요응답교통 플랫폼 서비스 상황 점검 김영태 사무총장 등 관계자 '똑타' 체험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형 교통 플랫 폼 셔클을 글로벌로 확대한다.

현대차는 17일 경기도 하남에서 OE 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똑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ITF는 육상교통과 환경 등 분야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를 주도 하는 국제기구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6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똑타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경 기도 통합교통서비스로, 현대차의 수요 응답교통 플랫폼인 셔클을 기반으로 제 공된다.

현대차는 수요응답교통 서비스 편의 성과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글 로벌 확대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ITF 관 계자 등에 똑타 체험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시승에 앞서 관계자들에 똑타 서비스 운영 방식과 셔클 플랫폼 지역 맞춤형 솔루션 등을 설명했다. 이 어서 일반 소비자들과 같이 버스를 호



OECD 국제교통포럼 관계자들이 '똑타'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출하고 탑승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교통 경로 탐색 등 기술력을 직접 보여 줬다.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도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시승을 계기로 글로벌 실증사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했다.

OECD 국제교통포럼 김영태 사무총 장은 "셔클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을 통 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교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모 빌리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확대 및 교통서비스의 포용성 제고를위해이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셔클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지난 2년간 셔클 플랫폼은 경기도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스마트 대중 교통 솔루션으로 자리잡았다"며 "OE CD 국제교통포럼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교통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

전시관 운영… UAM 사업 비전 공유

제주항공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주 국제 UAM·드론 컨 페스타'에 참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3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는 '제주 U AM, 제주 하늘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UAM 산업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 형 UAM 상용화를 위한 산업 활성화 방 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주항공은지난17일부터 18일까지이 틀간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제주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UAM 사업의 개념과 사업비전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했다. 제주항공의 UAM OCC(운항통제·비행계획·비행감시) System과 UAM 조종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UAM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밖에 제주항공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제주형 UAM 상용화를 위한 사업 진행 방향성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3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에서 박태하 제주 항공 UAM 사업추진단장이 'UAM VISION, 꿈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제주항공이 해외 기체사 EVE와 공동 연구를 통해 발간한 '제주지역 UAM 운용 백서'를 바탕으로 제주도 기반 UAM 사업 상용 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주항공관계자는 "항공운송사업자 로서 항공 경영의 노하우와 지식을 바 탕으로 UAM사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 해 항공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더해 나 갈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항공 여행 대 중화를 이끌어 낸 경험을 활용해 UAM 대중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초거대 AI 등 디지털 트렌드 공유

제2회 DX 포럼

디지털 디렉터 기술 진화 등 발표

두산에너빌리티가 'DX Forum 2023'를 통해 디지털 트렌드를 다루는 자리를 가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I로 진화하는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 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DX Foru m'은 산업계 디지털 트렌드를 공유하 고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지 난 해 처음 열렸다.

이날 포럼에선 ▲초거대 AI가 가져올 디지털 UX의 미래 ▲산업 AI의 현재와 미래 ▲2024 AI로 진화하는 산업의 경쟁력(두산에너빌리티 사례)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이어진 산업 적용 사례 소개로 ▲초거대 AI를 적용한터빈 진단 서비스 ▲산업용 디지털 디텍터(Digital Detector) 기술의 진화등이 발표됐다.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혁신부 문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두산에너빌 리티의 디지털솔루션으로 각종산업현 장에서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 사례 를 소개하고, 향후 서비스 방향성도 설 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특히 최근 화 두인 초거대 AI, 생성형 AI 기술을 발 전과 제조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계 의 노력들도 활발히 공유하는 등 실용 적인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11~12월 항공권 특가 판매

국내・국제선 42개 노선 할인

티웨이항공이 프로모션 특가로 항공 권을 판매한다.

19일 티웨이항공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6일까지 '11~12월 출발 임박 항공권 특가'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특가 프로모션은 국내선 5개 노선과 국제선 37개(일본, 동남아, 호주, 중화권, 중앙아시아, 대양주) 노선 대상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우선 국제선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초특가 운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류 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나트랑 13만9800원~ ▲인천~비엔티안15만2400원~ ▲인천~ 청다오 7만4500원~ ▲인천~시드니 36만9190원~ ▲인천~사가 9만9500원~ ▲청주~나트랑 13만4800원~ ▲청주~다당 13만4800원~ ▲대구~다당 13만1680원부터 판매한다.

초특가를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임 박특가'를 입력하면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별 편도 및 왕복 항공권에 3~10% 의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허정윤기자

다수 언어도 동시에 통·번역… "AI로 외국인과 실시간 대화"

IT·전자업계, AI 통·번역 상용화 삼성, 갤럭시S24 실시간 통번역 플리토, 대화번역 등 서비스 개시 앤디소프트, 다자간 대화도 통역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어려움 없이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 나 좋을까? 막연히 상상하던 어린 시절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실시간으로 발 화하는 말과 글을 인공지능(AI)가 즉각 분석해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AI 기술 이 속속 상용화 하고 있다.

19일 IT·전자업계 곳곳에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상용화와 시범회를 선 언하며 기술 경쟁 중이다.

실시간 AI 통·번역은 그동안 첨단 I CT 기술에 기대하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통역 기술을 위해서는 발화자 2인이상의 사용 언어와 종류를 강세, 어투, 억양 등 음성학적 특징을 더해 즉각 분석하고 새로운 언어로 재창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언어 학습 데이터셋을 AI에 학습시켜야하는데, 이를 위해 구글 등은 2010년대



외국인 관광객이 광화문 관광안내소에서 플리토 대화 번역(Chat Translation)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 이미 실시간 무료 번역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들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얻기도 했다. 데이터 처리 속도 또한 관건으로 초 단위 이하로 모든 과정이 처리돼야 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통·번역을 위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 등이 비로소 현실적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에 이르자 잇따라 IT·전자업계에서 관련 기술을 속속 선보이는

중이다.

삼성전자는 새로 나올 갤럭시S24 시리즈를 갤럭시 시리즈 최초 생성형 AI 기술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스 마트폰이 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 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등 외 부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 서 AI기능을 실행하는 형태로 보안 강 도가 높다.

갤럭시S24는 온 디바이스 AI를 활

용해 스마트폰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통역 통화(AI Live Translate Call)을 탑재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언 어를 상대방의 언어로 받을 수 있는 데, 통역된 대화는 오디오(음성) 형태 나 텍스트 형식으로 스마트폰에 표시 된다.

플리토는 15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리토 '대화 번역(Chat Translation)' 서비스를 개시했다. 방한 외국인들을 돕고이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광화문 관광안내소와 서울관광플라자 로비에 우선 설치했다. 대화자 2인의 말을 AI가 텍스트로 변환, 고품질의 번역 결과를 투명 디스플레이창에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현재 영어, 중국어(간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등총 11개 언어를 지원한다.

플리토 대화 번역(Chat Translatio n) 서비스는 발화 문장의 텍스트화 및 AI 번역의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플리토 자체 개발 'CT엔진'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기존 AI 번역 엔진

과 STT(Speech-to-Text; 음성 텍스트변환) 엔진을 고품질 다국어 병렬 코퍼스(말뭉치)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 학습으로 고도화해, 기존 STT와 MT(기계번역)의 정확도를 15~20% 이상 높였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CT엔진'의 정확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

앤디소프트는 실시간 AI 통역 플랫폼 서비스 '브릿(BRIT)'이 현재 삼광, 부산다문화국제학교, 부산소상공인연합회 등 61개 기업 및 기관과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브릿은 특히 다양한 언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데 다수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다자간 대화도 실시간 통역할 수 있다.

박남도 앤디소프트 대표는 "부산국 제영화제를 비롯해 각종 국제 전시컨벤 션에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며 "'브 릿'의 고차원 통역 서비스는 부산은 물 론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 이고, 언어소통솔루션으로 소상공인과 기업 경쟁력 강화,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에코플랜트,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진출 '본격화'

에코프로·테스와 헝가리 공장 설립 "차별화한 리사이클링 기술력 자신"

SK에코플랜트가 국내 친환경사업 및 이차전지 소재 선도 기업인 에코프 로,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 테스(T ES)와 함께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와 에코프로, 테스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수송동 본사에서 '헝가리 배터리 재활 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헝가리 폐배터리 공장 건 설은 3사의 첫 프로젝트이다. 에코프로 는 이들 회사와 지난 3월 '유럽 지역 배 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맺고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사는 협약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왼쪽부터)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송호준에코프로 대표, 테렌스 응(Terence Ng) 테스회장이 16일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 촬영을하고 있다.

협력 지역으로 헝가리를 확정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중국, 폴란드, 미국

에 이어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국이다. 국내외 배터리 관련 기업과 전기차업체의 투자가 이어지며 유럽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있다.

폐배터리재활용사업은재활용을 위한 '피드스톡'을 얼마나 많이, 안 정적으로확보하는지에성패가달려 있다. 피드스톡은 배터리 제조공정 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인 스크랩 물 량과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 물량을 의미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헝가리에는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업체 3개사(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3개사(CATL, Eve Power, Sunwoda)가 헝가리투자 진출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배터

리 셀 제조업체인 삼성SDI와 SK은 등이 진출한 곳이기도 하다. 에코프로 측은 "헝가리 배터리 생산량은 2022년 대비 2030년 7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분석했다.

3사는 헝가리에서 폐배터리와 스 크랩 등 재활용을 위한 원료를 안정 적으로확보할계획이다. 에코프로의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 기술력과 SK 에코플랜트, 테스의글로벌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헝가리 등 유럽 지역에 거점을 둔 국내외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에코프로 측은 "습식공정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한 리사이클링 기술력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 오픈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LG테크놀로 지벤처스,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 관계자들 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

펀드 규모 1兆 돌파

4개 계열사 추가 출자 결정

LG가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투 자를 대폭 강화한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최근 운용 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19 일 밝혔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LG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설립한 벤처캐피탈(CV C)이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7곳이 출 자한 6000억원 규모 펀드를 운용해왔으 며, 70%를 소진했다.

LG는 올해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계열사가 추가로 출자를 결정하면서 1 조원 이상 펀드를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신기술 투자 선순환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글로벌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펀드 등 64곳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배터리, 모빌리티 등에 절반을 쏟았다. LLM 기반 올인원 솔루션 기업 올거나이즈와 오픈AI 연구진이 창업한 앤스로픽에도 투자했다. 메타버스 기업 인월드 AI와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엘리먼트에너지' 등에도 투자를 이어갔다.

/김재웅 기자 juk@

SKT "성공적 6G 시대 맞이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필요"

6G 특별세션 통해 연구·개발 발표 글로벌 활동 통해 6G 생태계 선도

SK텔레콤이 6G 표준화 현황 및 글 로벌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SK텔레콤은지난16·17일양일간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SK 테크 서밋 2023'에서 6G 특별 세션을 통해 6G 표준화 현황 및 글로벌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SKT는 6G 특별 세션에서 ▲올해 2 월 6G RIS 개발 ▲국내 이동통신 사업 자 최초 6G 백서 발간 등 SKT의 연구· 개발 활동을 소개하고 ▲온디바이스(O n-device) AI 기반 전력소모 절감 기 술 ▲오픈랜 기술 현황과 진화 방향 등 6G 시대의 핵심기술들을 소개했다. N TT도코모, 벨 캐나다 등 글로벌 사업자 도 6G 특별 세션에 참여해 6G의 성공적 인 표준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나카무라 타케히로 NTT도코모 CSO(최고 표준화 책임자)는 6G 유망 기술 및 SKT와 함께 발간한 6G 공동 백서 등 작년 11월 SKT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후의 협력 결과물에 대해 소개했다.

이동통신 사업자 주도의 글로벌 얼 라이언스 NGMN(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의 6G 백서 주저 자인 자반 에르파니안 벨 캐나다 기술 디렉터 또한 올해 초 발간한 NGMN 6G 백서 등 NGMN의 6G 프로젝트 활동 내역과 글로벌 협력 현황을 소개 했다.

자반 에르파니안이 소개한 NGMN 의 6G 백서는 사업자 관점에서의 6G 요 구사항과 설계 고려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도이치텔레콤, NTT 도코모, 보다폰 등 약 40여개사가 공동 저작했으며,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중에선 SKT가유일하게 참여했다.

SKT는 성공적인 6G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최근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통해 6G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다.

SKT는 지난 11월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린 '6G 브루클린서밋'에서 국내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가해 'AI 기반6G 네트워크 진화를 포함한 6G 핵심기술 및 요구사항' 및 '6G를 위한 킬러서비스 및 저주파 광대역 주파수 확보'등의 내용으로 기조 연설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텔레 콤 월드 아시아'에서도 '6G진화에 필수 적인 저주파 광대역 주파수 확보, 조기 연구개발,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통 한 생태계 확장' 등을 주제로 기조 발표 및 패널 토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OPEN EVENT 11.17 - 12.07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0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에 초대합니다.





12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metr⊕

집단소송에 풋백옵션 확대까지… IPO 주관사 부담 커진다

거래소, 상장규정·세칙 개정 예고 주관사 자발적 풋백옵션 부여하기도 한누리 '파두' 투자 피해주주 모아 주관증권사 상대 민사소송 준비중

'부실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로 상장 주관사들의 책임이 가중될 전망이 다. 기업공개(IPO) 관련 첫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고, 내년부터 기술특례상장기 업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과 의무 도 확대된다. 주관사 부담이 커지며 내 년 IPO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닥시장에서 파두는 1만7920원에 거래를 마치며 공모가(3만1000원)보다 42% 추락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원에 그치며 상장 당시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1200억원)의 15%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특히 상장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분기국내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17일 한국거래 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



파두 이지효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8월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 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주관사에 대 한 책임성을 높여 제 2의 파두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상 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 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하는데 있어 풋백옵션 의무가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 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 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공모 가 90% 가격으로 이를 되팔 수 있는 권 리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상 장 기업 가운데서도 상장 주관사의 판 단 하에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하는 기 업들에게만 부여했지만, 조기 부실 기 업에까지 풋백옵션 의무가 확대되는 셈 이다.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다음달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인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기술특례상장임에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주

관사인 유안타증권은 "의무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권리 기간도 6개월을 제시했다"며 "상장 후 주가흐름에도자신감을 보인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상장한 파로스아이 바이오 역시 상장 후 6개월간 풋백옵션 을 제시한 바 있다.

IPO 관련 첫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부담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법무 법인 한누리는 파두 투자로 손실을 입 은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 증 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 초 공모에 참여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두 주식을 장내 매수한 모든 모든 개인주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한누리측은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 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 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치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치를 진행하지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과 주 관사 책임이 커지면서 앞으로 실적 기 반이 없는 혁신 기업들의 IPO가 어려 워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기존 투자자들의 요구나 IPO 흥 행을 위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 실사 의무가 강 화되고, 풋백옵션에 소송까지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 기술특례상장에 소극적 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美 긴축종료 기대감… 증시 우상향 그릴까

공매도 전면금지 등 불확실성 개선 외국인 이달 국내주식 3.1조 순매수

"연말 쇼핑시즌 등 호재 예상하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 잔존"

물가 둔화와 함께 미국의 긴축도 종료 시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중단 이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연말 쇼핑 시즌 등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지난주코 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2.50%(60.19포 인트) 상승한 2469.85에 장을 마감했 다. 공매도 한시적 전면 중단이 시행되 기 직전이었던 3일 기준으로는 4.28% (101.51포인트)가 올랐다. 공매도 전면 중단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이 종료됐다는 기대감 등 주식시장 내 불확실성이 개선되자 외국인 투자자들 의 투자심리도 개선됐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3896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3조 1184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 I)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직전 달 3.7% 상 승했다는 점과 시장 예상치였던 3.3% 상승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긴축 종료 기대 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7일에는 국내증시가하락하며 숨고르기에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은 "미국채 금리 하향,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확대, 유가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증시를 괴롭힌 리스크 요인들이 한층 완화된 상황"이라며 "새로 운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닌 기술적인 측 면에서의 되돌림 성격으로 숨고르기 국면 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산타랠리 가능성 등이 겹쳐 주식 시장의 다양한 호재 요인이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에 대응한 연준 위원들의 구두개입 가능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변수 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 절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점쳐졌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물가 하락에 기반한 금리하락, 24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 등이 있지만 미국장기국채금리하락이주식시장의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며 "이처럼 빠른 속도의 금리하락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완만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속도는 점차 감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도 "공매도 금지 직후 2500 선까지 폭등했던 코스피는 2400선 지지 력을 확인하며 2차 상승을 재개하고 있 다"면서 "과도한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단기 등락은 감안해 야겠지만 11월 중 2500선, 연내 2600선 돌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中 단체관광객 유입… 4분기 수혜 기대감

호텔신라

6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호텔신라의 주가가 중국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실적 개선에 힘입어 4분기 이후 상승세 를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상훈 신 한투자증권연구위원은 "사드와 코로나 19를 거치며 관광객 비중이 줄어들고, 따이공(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아져 경 쟁이 치열했다. 연초부터 따이공향 알 선수수료율 정상화 노력으로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매출은 부진한 상황에서 단체관광객의 입국은 가뭄의 단비"라면 서 "4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입 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객 구성의 변화 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3분기 어닝쇼크, 일시적 현상 "주요 지표들, 개선추세 이어져 내년 가장높은 이익성장 가능"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 일 호텔신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00원(1.79%) 하락한 6만5800원에 거 래를 마쳤다. 호텔신라는 지난 8월28일 9만4000원까지 오르는 등 정점을 찍었 으나 현재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 다. 특히 지난달 30일 장중 5만7900원 까지 하락하며 2017년 10월 이후 6년 만 에 최저가를 찍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 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27일 3분기 매출 이 전년 동기보다 25.7% 감소한 1조 118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같 은기간71.1%감소한77억원으로시장 기대치(689억원)를 크게 하회했다. 실



적 악화의 원인으로 면세점이 지목된

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회

복세가 보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인건비

및 체화재고(시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재고) 관련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호텔신라 전경.

따라 실적 발표전 7만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6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호텔신라의 3분기 어닝쇼크를 두고 재고 관련 손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4분 기에도 체화재고 소진에 따른 진통이 발생하겠지만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으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점은 아쉬우나 주요 지표들은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호텔신라의 주가에는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조상훈 연구위원은 "신라면세점은 오랜기간 갖춰온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와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어 독보적 매입 경쟁력을 보유했다"며 "사드와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맞이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호텔신라의 수익성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관회기자 wkh@

삼성증권, 채권거래 이벤트 3종 진행

한달간 네이버페이 등 조건부 지급

삼성증권이 채권 거래 이벤트를 11월 한달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3가지로 구성되는데 모든 이벤트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첫번째 이벤트는 기간 내 mPOP 온라인 해외채권 1000달러 이상 순매수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지급

한다. 기존고객·첫 거래 고객 모두 가능하다.

두번째 이벤트는 채권 무거래 고객 대상으로 기간 내 온라인 국내 장외채 권 100만원 이상 첫 순매수 시 배달의 민족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기간 내 온라인 국내 장 외채권 누적 순매수 금액별 리워드를 지급한다. 순매수급간에 따른 현금 리 워드를 지급하는데, 1000만원 이상 시 현금 1만원부터 최대 5억원 이상 시 현 금 15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삼성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에서 국내장외채권 10만원 이상 첫 매수거래 시 이마트·G S상품권 5천원을 전원 지급하고, 중개 형ISA 계좌에서 국내장외채권 순매수 금액별 이마트-GS상품권을 1만원에 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중개형I SA 채권거래 이벤트'도 11월 한달간 진 행한다. /원관회기자 wkh@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전시장에 관람객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오래 기다려도 설레요"… 신작 체험에 구름 인파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 '지 스타2023'이 지난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현장에는 오랜만에 복귀한 게임사 수장 들이 자사의 신작을 직접 공개하고 설명, 체험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관람객들의 기대를 높였다.

19일 지스타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지스 타 2023은 42개 나라에서 1037개 기업이 3328개 부스를 열어 규모 면에서 역대 최 대 기록(2019년 3208개 부스)을 경신했다.

이번 지스타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위메이드, 구글플레이, 스마일 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대거 참가했다.

엔씨 등 주요 게임업체 대거 참가 자사 신작 직접공개에 기대감 높아 게임전시 등 다수 스포츠 행사 진행 하이브 등 B2B 부스로 신기술 소개

또 하이브,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게 임즈, 펄어비스 등은 B2B 에 부스로 참가 해 신작과 신기술을 소개했다.

올해 지스타에는 8년만에 복귀한 엔씨소 프트와 9년만인 스마일게이트의 수장들이 행사에 직접 참가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주는 지스타 개 막날인 16일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 랜만이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준비 했다. 새로운 장르의 신작으로 참가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면서, 게임을 즐기는 고객층도 새로운 세대가 나온다. 서 브컬처 등 장르적인 면에서도 소외된 장르 가 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NC)는 지스타 기간동안 ▲슈팅 'LLL'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B ATTLE CRUSH)' ▲수집형 RPG '프로

젝트 BSS' 등 신작 3종의 시연 부스를 운 영한다. 뿐만 아니라 내달 7일 공개를 앞두 고 있는 신작MMORPG TL은 새로운 영 상을 공개했다. 또 MMORTS '프로젝트 어서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설레는 마음 G'와 인터랙티브 어드벤처 '프로젝트M' 은 관람객들에게 신규 영상을 공개했다.

엔씨소프트 현장 부스에는 체험을 하고 있거나 대기중인 게이머들의 문전성시를 이뤘다. 엔씨 부스 앞에서 만난 김 모씨 (21)는 "슈팅게임 LLL을 체험하러 왔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9년만에 지스타에 복귀한 스마일게이트 는 신작 MMORPG '로스트아크 모바일' 을 공개했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기존 P C게임인 '로스트아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출시한 게임이다.

이날 현장에는 권혁빈 CVO가 비공식 방문해 자사게임뿐 아니라 타사 게임까지 체험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권혁빈 CVO는 현장에서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넷마블의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크래프톤에서는 '프로젝트 인조이',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와 슈팅 게임 'LLL' 을 체험했다.

현장에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권 CV O가 비공식으로 방문했지만 게임 체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은 미리 받았다. 방문 시간이나 날짜는 몰랐다"고

게임 체험 후 권영식 CVO는 자사 신작 인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체험했다.

그는 "모두 열심히 했다. 게임업계를 응원 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로 스트아크 모바일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지난2월스팀을통해글로벌출시한 '로 스트아크'의 지난해 매출은 7370억원, 영 업이익 364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출 은 50%,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수치다. 로스트아크를 체험하려고 기다리고 있

는 이 모씨(19)는 "수능 끝나고 바로 지스 타 현장을 찾았다. 로스트아크가 기대된 다. 빨리 체험해보고 싶다. 사람이 너무 많 뿐이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위 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연도 관 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게임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던 아이언메이스사의 다크앤다 커 IP를 크래프톤이 인수, 자회사 블루홀 스튜디오를 통해 자체 개발 중인 신작이다.

게이머들이 데모 플레이를 해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장 반응은 대체적으 로 긍정적이었다.

전시 부스를 찾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다양한 요소 를 융합하는 게임 등 다각도로 개발을 이어 가고 있다"며 "크리에이티브(창조성)를 발 굴,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이 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 2023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 위메이드는 신작 '레전드 오브이미르'와 '판타스틱4베이스볼'을출품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레전드오 브이미르'는 북유럽 신화를 재해석한 MMO RPG다. 최신 언리얼엔진5 기술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완성했다. 실제 '지스 타' 시연 버전을 통해 체험한 '레전드오브이 미르'는 고품질 그래픽이 눈길을 끌었다.

판타스틱4 베이스볼 시연 버전도 최초 로 선보였다.

현장을 방문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올해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나이트 크로 우'가 내년 해외 시장에 본격 출시되면 더 큰 흥행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어울 리는 방식대로 가되 그것이 취향에 맞지 않는 이용자들에겐 다른 게임을 선보이는 식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신작 시연 부스뿐만 아니라

가수 청하의 공연, 드론쇼, 롯데자이언츠 박세웅, 나균안 선수 사인회 등 다양한 이 벤트를 함께 선보였다.

넷마블은 신작 3종 '일곱 개의 대죄: 오 리진', '데미스 리본', 'RF 온라인 넥스트' 를 게이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을 100 부스 규모로 마련했다. 특히 이벤트 모드 인 풀루언서 대전에 관람객들이 대거 몰렸다.

성승헌 캐스터와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 행을 맡은 인플루언서 대전에는 뜨뜨뜨뜨, 변승주, 김성회, 수피, 구루미, 주서리가 참가했으며, 웨이브마다 특수한 효과를 지 닌 카드를 선택해 전투를 진행하는 '이벤트 모드'로 대전을 펼쳤다.

인플루언서와 이벤트모드 대전 게임 코스프레 의상 입고 찾아 굿즈위한 스탬프 모으기 인기 넥슨 불참에 아쉬움도 내비쳐

현장에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찾은 관람 객들이 많았다.

관람객들은 신작 게임을 체험해 보기 위 해 1시간가량 대기하거나, 게임 굿즈를위해 스탬프를 모으려는 노력을 마다치 않았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도 대거 지스타 현 장을 찾았다. 일각에선 넥슨의 부재를 아 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이 끝나서 왔다는 이 모씨는 "올해 지스타는 역대급 큰 부스라고 해서 바로 수능이 끝나자 마자 왔다. 볼거리, 즐길거 리가 풍성해서 기대한만큼이었다. 하지만 넥슨이 참가하지 않아서 아쉬운 건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스타에 불참한다고 밝힌 넥슨은 행사 기간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일렉트 로닉 아츠(EA)와 함께 축구 게임 '에프시 (FC) 온라인'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유저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RPG가 지난 16일 부산에서 개최된 '지스타 2023'에서 블록 버스터 신작 '로스트아크 모 바일'의 전시관을 오픈하고 관람객들을 맞았다. /뉴시스

정책·공기업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metr⊕

산업부, 태국과 신산업·녹색경제 협력… 교역·투자 확대

태국, 아세안 경제규모 2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신속 개시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동참 요청

한국과 태국이 양국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 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달개비 에서 태국의 날리니 타베신(Nalinee Taveesin) 통상 대표와 만나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정상회담의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국과 태국은 양국 수교 65주 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고 도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태국의 경 제규모는 아세안 2위로, 작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 제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태국 을 포함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수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 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날리니 타베신 태국 통상대표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위로,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지난달 대 아세안 수 출은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해 올 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양국은 우선 '2022~2027 한-태국공 동행동계획'에따라교역•투자확대,신 산업 및 녹색경제 분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 협력 고도화를 위 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 hip Agreement)' 협상을 신속히 개시 해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장관급 무역공동위를 재개해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또 양국의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 를 적극 활용하는 무탄소(CF) 연합 이 니셔티브에 태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

이에 대해 날리니 타베신 통상대표 는 "태국의 신정부도 한국과의 신산업 과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

안 본부장은 아울러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 박람 회 부산 유치 관련 태국의 지지를 요청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12년간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약 48.6억 부과

아이스크림유통에필요한드라이아 이스 제조사들이 12년간 빙과사에 납 품하는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고, 서로 남는 제품을 사고 팔며 시장 점유율도 조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 월~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 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 을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단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 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동광화학, 선 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 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 컬 6개사로 당시 롯데제과·롯데푸드· 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했다.

이들은 2005년 신규 사업자인 어프 로티움(당시 덕양화학)이 진입해 가격 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각사의 시 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 량을 정산하며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 게 판매한 회사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 럼 동일하게 변동했다. 시장점유율 담 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 속됐는데,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 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 은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장 확대

참여 시장 53개 → 90개로 확대 구매금액 최대 40% 환급 가능 김장재료 수산물 적기 공급

해양수산부가 19일 온누리상품권 환 급행사를 기존 53개 시장에서 90개 시 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산 수산 물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 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20일부터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 수가 43개소 늘 어난다. 해수부가 김장철을 언급하는 등 김장거리로 쓰이는 굴・새우젓・생선 등을 구매할 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 90곳에서 국 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한도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 매금액 2만5000원~5만 원 미만이면 1 만 원권, 구매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권을 받는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 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 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했 다"며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 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

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 별전으로 나뉜다. 참여 시장 등 세부내 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없이 적기에 공 급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속적으 로 살피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 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경부,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 입법 예고

내년 3월부터 시행 위해 마련

환경부가 19일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20 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 다. 법안은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감축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은지난9월14일 공 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 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침수방지시설(제방, 저 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 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스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스도 시침수예보 및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다.

또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6일 오전 4시 24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 동 한 도로가 비에 침수, 소방당국이 조치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 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구・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 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 생한 경우도 명시했다. 이 경우 침수방 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 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 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UAE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 방문… 해외수출 본격화

김동철 사장, 현장경영 강화

한국전력이 해외원전 수출을 위한 현장경영 강화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 난 16일(현지시간)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한 현장 경영의 일환으로 아랍에미 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사장은 상업 운전 중인 바라카 원 전 1~3호기를 둘러본 뒤 지난 5월 건 설을 마치고 가동 준비에 착수한 4호기 의 연료 장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현장 근무자들과 만나 "4개 호 기가 동시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규모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임직원 모 두가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UAE 원전 1~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 운전 을 시작해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고 있 다. 2015년 7월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에서 3번째)이 바라카 원전시찰에 나선 모습.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연료 장전 준비 를 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인 UAE 원 전의 한 기 설비용량은 1400MW다. 현재 가동 중인 1~3호기 설비 용량은 4200 MW이며 4호기까지 추가로 가동되면 U AE 전력 수요의 약 25%를 담당한다.

아울러 김 사장은 한전이 UAE에서 수행 중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 저 송전망 건설 현장도 점검했다. 한전 이 일본 큐슈전력 및 프랑스전력공사 (EDF)와함께 2021년 12월 수주한해당

리트 타설을 시작한 마지막 4호기는 사업은 바라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HVDC 방식으로 UAE 해상 원유 시추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김 사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 부다비 행정청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 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을 만나 양국 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의 지속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전은 "김 사장은 UAE에 이어 잠재 원전 도입국인 영국으로 이동해 오는 24일까지 현장 경영을 계속 이어갈 계 획"이라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

안전보건公, 건설업 특화 안전보건정보 제공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 구축

안전보건공단이 20일 일일 건설안 전관리 상황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안전상황판은 사 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각종 안전보건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단은 "기존에는 건설현장에서 필 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며 "안전상황판은 지역별 날씨정보, 사망 사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해당 날짜의 과거 사망사고 사례, 위험성평가표 예

시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건설안전 이슈 ▲중대재 해 사이렌 등 산재사고사망 속보 ▲민 간 대형건설사의 각종 안전보건 콘텐 츠 등 다양한 정보를 상황판에서 확인 할수있다.

상황판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 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장에서 휴게공간이나 식당 등 근로자 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정보 송출용 모니터(터치스크린 등)만 갖추면 간편 하게 안전정보 표출이 가능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4에서 제작 완성하는 AMAS장비 무상지원







내 발의 형태와 아치/족궁에 딱 맞추는

AMAS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쑤욱~쑥



받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제는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국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지방자치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metr⊕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유치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

2개월 만에 120만6355명 참여 이달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 공모 신청 앞서 추진委 전달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염원 이 두 달 여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 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지난 11월 16일 기준으로 총 120만63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 계됐다.

지난 9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 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 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 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2 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120만명을 훌 쩍 돌파한 것이다.

이에 경주시는 11월 17일 경주화백 컨벤션센터(HICO)에서 주낙영 경주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100만인 서명달성 기념식에 참석해 버튼터치 퍼포먼스를 펼치고

시장, 이철우 시의장, 이달희 경상북 도 경제부지사, 박몽룡 범시민추진위 원장을비롯한서명운동참여기관·단 체와 100만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편 시는 이번 100만 서명 달성은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 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

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 서명운 동에 대한 전 국민적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앞서 경 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1 개 시장군수의 지지 서명을 시작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홍보단 과 시의회 유치 특별위원회도 도내 시 군과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며 100만 서명운동 동참을 적극 이끌어 냈다.

시는 이달까지 2025 APEC 정상회 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경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에서 이와 같은 성과 는 시도민은 물론 전국에서 경주를 지 지해 주는 마음이 모인 것"이라며, "많은분들이 보여주신 APEC 정상회 의 경주 유치에 대한 뜨거운 응원과 관심이 반드시 성공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 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 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공모신청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 는 한편 범시민적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주(경북)=이상호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여수시

'다섬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여수시(시장정기명)가2026여수세계섬박 람회 캐릭터인 '다섬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을 2만 6천 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2026여수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섬 박람회 성공 개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모티콘은 지난해 개발된 2026여수세계 섬박람회 EI(Event Identity) 디자인을 활 용, 소셜 메신저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친근 하게 사용하는 동작 16종으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힐링여수야'를 검색해 친구 추가하면 된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경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7일 경북도 순 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을 가 졌다.

이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 의회 상임위원장 들과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에는 국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 정 신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공무원 36명과 일반직공무원 27 명을 포함해 총 63명의 순직공무원이 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울산-부산항만公, 경쟁력 제고 노력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맞손'

벙커링 선박 항비 감면 · 인센티브 정보 플랫폼・해외 선사 마케팅 계획

울산항만공사(UPA)와 부산항만 공사(BPA)가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 링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친 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이 항만의 경쟁력과 항로 유지에 필수 요소인 만 큼 양 기관의 발빠른 대응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UPA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 환경선박연료공급망구축방안의후 속 조치로 지난 17일 공사 사옥에서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UPA 김재 균 사장, BPA 강준석 사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울산항-부산항 간 친환경 기대된다. /울산=이도식기자 metrobusan@

선박연료 벙커링 상호 협력을 위한 업 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벙 커링 선박 항비 감면 등 인센티브 제 공▲친환경선박연료정보플랫폼구 축 ▲친환경 벙커링에 대한 해외 선사 마케팅 활용 등 국내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가 친환경 선박연료 거 점항만으로 울산항을 지정한 만큼 울 산항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항에 기항 하는 세계적 선사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UPA가 추진하는 LN G·메탄올·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물 류 주요 사업들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부산시, 佛서 한복 기반 엑스포 옥외광고

한복 디자인 광고로 분위기 고조

부산시(시장박형준)가국제박람회 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 리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 는 한복기반의 화려하고 직관적인 디 자인의 옥외 광고를 진행한다.이는 오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 정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 현지 에서 한국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투표 권이 있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표심을 흔들기 위해서다.

현재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하 고 있는 옥외광고는 ▲파리 택시 외부 랩핑(100대) ▲드골공항내디지털타 워(4기) ▲파리 대형쇼핑몰월스크린 (2기) 등이 있다. 파리 택시 100대엔 색동한복을 입은 어린이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랩핑돼 파리 시내 곳곳을 누비며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 키고 있다.

드골공항 수화물 도착장과 파리 대 형쇼핑몰시타디움 외벽 등에 있는 디



부산시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30엑스 포 유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산시

지털 타워와 월 스크린에는 한복을 착 용한 외국인이 '엑스포 2030 부산(EX PO 2030 BUSAN) '이 적힌 부채를 들 고 있는 4종류의 시안이 송출되고 있 어 파리관광객, 현지인 등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조유장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 부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2030부산세계박람 회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활 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전남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추진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 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 과를 제출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하며 친환경농업인 외에도 일반농가도 신청 할수있다.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다. 상토 는 공시된 제품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전남=양수녕 기자

구미시

시민화합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구미시는 18일 구미역 광장에서 구미시장 로총연합회(회장 박병윤) 주관으로 '2023시 민화합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예배, 축사, 성 탄트리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트리는 내년 1월까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을 발 산하며시민들의마음을따뜻한온기로녹여 주고 종교를 넘어 시민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광주시, 이스포츠 중심지로 '부각'

전국 최대 규모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광주시가 이스포츠 중심지로 떠오 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중심 으로 굵직굵직한 대회를 개최하는 한 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과 게임개 발자 육성 등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이 스포츠경기장은 광주 이스포츠산업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포츠 경기장은 4290㎡ 규모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부조정실·P C존·미니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 다. 주경기장은 1731m² 1005석 규모 로국제대회등메이저급경기를치를



이스포츠 성지 광주.

수 있다. 가로 15.5m, 세로 4m 크기 의 4K 고해상도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가 무대에 구축돼 있으며, 어느 좌석에서든 2000W이상의 고출 력 스피커로 생생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는 올해 대회 유치 21회 등 모두 55차례의 경 기가 열렸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세계 트렌드 리더지식' 강연

BNK부산銀과 'BeFM 드림콘서트'

세계적 트렌드 리더가 도전과 영감 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이 열린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 표이사 황기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벡스코제2전시장에서 'BNK 부산은 행과 함께하는 2023 BeFM 드림콘서 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의 중•고등학생과 수험생, 그리고 시민에게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트렌드 리더의 지식과 공감을 나누고, 부산의 청소년에게 세계를 꿈꾸도록 격려하는 특별 초청

강연이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 재단 영어방송본부가 주최하고 BNK 부산은행이 후원한다.

이날 행사는 ▲네이버클라우드 인 공지능(AI) 이노베이션 센터의 하정 우 센터장이 '인공지능의 글로벌 트 렌드와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 도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 국제정치 전문가이자 방송인 김지윤 박사가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안목 을 키워라'를 주제로 세계를 향한 비 전을 제안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 간을 갖는다. /부산=장병호 기자

"건강관리 소비자 잡아라"… 식품업계 '오트' 출시 봇물

매일유업 어메이징오트 2종 출시 '버라이어티 세트' 증정 등 이벤트

블루샥 말차초코 오트라떼 등 2종 투썸플레이스 디저트 '오트 한 모' 농심켈로그 즉석밥 '통귀리밥' 선봬

최근 환경 및 건강관리에 몰입을 추구하는 '헬스디깅' 트렌드가 자리잡으면서 '오트(귀리)'를 주재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디깅(digging)은 '파다'라는뜻의 영어 단어다.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깊게 가질 때 '무엇을 판다'라고 표현하는데 디깅소 비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헬스디깅'은 건강에 대해 특히 몰입하고 있는 소비자층을 일컫는다. 기업들은 건강과 관련된 성분이나 기술을 적용하기도 하고 아예 새롭게 건강한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귀리를 가공한 대체유 '오트음료'다.

생산 과정에서 같은 무게의 우유 대비 탄소 배출을 70%, 물과 토지 사용을 90% 감소시킬 수 있어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혈중 콜



투썸플레이스의 오트한모(왼쪽), 농심켈로그 통귀리밥.

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베 타글루칸을 비롯해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상 이점도 크다. 여기에 부드럽고 깔끔한 맛으로 우유와의 위화감이 적 고, 유당불내증을 지닌 사람들도 소화 걱정이 없어 우유의 대체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식품업계는 친환경적이고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깔끔하다는 귀리의 장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오트음료와 귀리를 활용한 베이커리, 즉석밥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9일업계에따르면매일유업은이달 초 '어메이징 오트 커피'와 '어메이징 오트 초콜릿'을 출시했다. 어메이징 오 트는 매일유업이 고품질 핀란드산 귀리를 윈물 상태로 수입, 가공해 오트의 좋은 영양성분을 그대로 담아 선보인 100% 비건 귀리 음료 브랜드다. 국내 귀리 음료 중 귀리 함량이 가장 높다.

어메이징 오트커피는 어메이징 오트에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폴 바셋'의 콜드브루 원액을 섞은 RTD(즉석음료) 형 커피 제품이다. 어메이징 오트 초콜 릿에는 벨기에 생 초콜릿을 함유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첫 번째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가 개인별 성향을 알아보는 테스트에 참여하면 이에 어울리는

어메이징 오트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어메이징 오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함께 신청한 고객 총 10만명에게 배송비만 부담하면 총 5종(오리지날, 언스위트, 바리스타, 커피, 초콜릿)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버라이어티 세트'를 증정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선호하는 어메이징 오트 제품 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 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 사이트 에 '어메이징오트'를 검색하면 된다.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오트음료를 활용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 블루샥은 부드러운 풍미의 오트라떼 2종을 출시했다. 귀리음료 본고장스웨덴의 통귀리 100%로 만든 '올굿 오트 바리스타'를 사용해 귀리 향이 커피 노트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고소하게 어우러져

커피 본연의 맛을 최상으로 이끌어낸다.

오트음료 2종은 깔 끔한 콜드브루와 향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버라이어티 세트. 긋한 바나나향이 오트와 함께 입 안 가 득 부드럽게 감싸주는 '바나나 콜드브 루 오트라떼'와 초코와 오트의 조화로 운 달콤함 위 제주산 말차의 쌉싸름하 고 풍성한 풍미가 얹히는 '말차초코 오 트라떼'로 구성됐다. 투썸플레이스는 푸딩 스타일의 디저

두점들데이스는 구당스타일의 디서 트 메뉴 '오트 한 모'를 선보였다. 크림, 설탕, 우유, 젤라틴 등을 넣어 부드러운 식감을 특징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디저 트판나코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오트 한 모'는 우유 대신 귀리음료를 활용해 보다 가볍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사각 두부 모양을 닮은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재미도 더했으 며, 함께 제공되는 꿀을 뿌려 먹으면 한 층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시리얼 브랜드 농심켈로그에서는 통 귀리로 만든 즉석밥 '통귀리밥'을 출시 해 즉석밥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국

> 내 최초 백미를 섞지 않고 100% 통귀리만을 사용한 제품으로,

식이섬유와 단백질 등 귀리의 풍부한 영양소 를 온전히 담아냈다.

>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창립70주년 기념 최대 70% ▮

네이버·B마트 등 이커머스플랫폼서 리뷰작성시 포인트 7000원 적립 2만원 이상 구매시 5% 쿠폰 제공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CJ제일제 당이 네이버, B마트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함께 대규모소비자 프로모 션을 펼친다. 역대급 할인과 혜택을 제 공하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 이 CJ제일제당의 대표 제품들을 합리 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우선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는 'C J제일제당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제'를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햇반, 비비 고 왕교자, 스팸 등 올 한 해 소비자들에 게 큰 사랑을 받았던 20여가지의 CJ제 일제당 인기 상품들을 최대 70% 할인 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모션 기간 동안 비비고 베이직 김치 10kg 구매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7000원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비비고 왕교자 1.05kg 4개 구매시 7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다.

이외에도CJ제일제당공식브랜드스 토어 멤버십라운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2만원 이상 구매 시 5% 할인쿠폰 제공 등 다채로운 혜택을 마련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1일부터는 B마트와 함께 'CJ제일제당 창립 70주년 기념 빅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고메소바바치킨, 비비고 만두 및 국물요리 등 B마트에서 판매 중인 CJ제일제당 전 제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매일 선착순 70명에 한해 1만 배민 포인트를 지급하며, 2만원 이상 구매시 3000원 장바구니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할

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최근이커머스플랫폼 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고 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네이 버 공식 브랜드스토어 알림 받기를 설 정한 고객 수는 전년 대비 51만명 증가 한 129만명을 돌파했으며, 매출 역시 10월 누계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61% 신장했다. 특히 네이버에서의 햇반 매 출은 빠른 배송 서비스인 도착보장 캠 페인을 통해 10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330% 증가하며 역대급 성장을 달성했 다.

또한, 지난 9월 파트너십을 맺은 B마 트에서도 평균 30분 안팎으로 배송해주 는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반으 로 10월 누계 기준 매출이 1년사이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시너지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쿠팡 덕분에 매년 완판행렬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 일조"

AMOZING.

'호두나무숲' 대표 이인지씨

첫해 연매출 2.5억, 2년뒤 4.5억 "해외수출, 체험관광 사업이 목표"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를 활용해 억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쿠팡을 통해 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들은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사업 확장과 함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19일쿠팡에따르면전라북도고창에서 2만 평의 호두 농장을 운영하며 호두를 판매하는 '호두나무숲'은 쿠팡에 처음 입점한 2020년 연매출 2억5000만원을, 2022년에는 연매출 4억5000만원을 달성했다. 서울에서 수험공부를 하던이인지 대표(34)는 5년 전 아버지 이희수(62) 씨의 부탁으로 호두 사업에 뛰어든 뒤 청년 사업가가 됐다.

30년 경륜 베테랑 농부 이희수 씨는 10여년 전 2만평 부지에 1500그루의 호두나무를심었다. 호두나무는수확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 이 씨는 "수확할시기가 됐지만, 10년 동안 투자했던 금액을 모두 거둬들이려면 이전처럼 유통하고, 상인 도매를 해서는 될 턱이 없어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이인지 대표는 처음엔 수확량이 많지 않아 충분히 재고를 소진할 수 있었지만, 수확량이 6톤으로 늘게 되며 온라인 판매에 위기를 맞았다. 그 때 친구들의 추천으로이 대표는 쿠팡마켓플레이스에 입점했다. 그리고 입점하자마자 수확한 호두



이인지 호두나무숲 대표(왼쪽)와 아버지 이희 수 씨가 호두나무숲 상품을 들고 있다. /쿠팡

를 완판하며,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최근에는 재고관리, 배송, 고객응대까지 다 해주는 로켓그로스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호두는 매년 수확량이 증가하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쿠팡덕분에 매년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은 10톤 물량도 거뜬히 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쿠팡에서판매량을 높이기 위한키워드설정부터차근히 알려주고,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 있어 재고가 쌓일 틈이 없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용도늘었다. 이 대표는 "한창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최대 15명까지도고용하고 있다"며 "매번 인력을 구하기어려워 고창 군청과 연계된 다문화 이주 청년 등을 고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덕분에 고창에 저처럼 청년 농부들도 늘어났고, 관광객도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쿠팡에서 해외 수출도하고, 체험 관광 사업이라는 꿈도 이루며 최고의 여성 농업 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세빈일레븐, 소비자들과 CM송 등 제작

총 5편 'CM송 제작기' 마무리

세븐일레븐이 소비자들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7일 총 5편으로 구성된 '세븐일레븐 CM송 제작기'가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공식 유뷰브 채널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웹 예능 영상 '7CM(칠센치)' 시리즈를 공개해 왔다.

1편과 2편에서는 아이돌그룹 '데이 식스'의 영케이와 유뷰터 나선욱이 세 븐일레븐 일일 근무자로 일하며 고객과 직원들을 인터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CM송은 3편에서 공개하고 4편에서 CM송 챌린지를 기획했다. 5편은 뮤직비디오다.

현재 시리즈 누적 조회 수는 600만을 돌파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결과 물을 숏폼 등으로 재생산해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까지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븐일레븐은 '칠센치 챌 린지'를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할 예정 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백화점 니틀리 팝업스토어 오픈

최근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니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니트전문 디자이너 브랜드 '니틀리' 팝업 매장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2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니틀리'는 우수한 원시를 수집해 니트 워머, 집업, 가디건, 아노락 등 다양한 니 트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은 이번 행시를 기념해 롯데월드몰 한정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유전자 편집 치료제 시장 '물꼬' K-바이오업계, 실력발휘 나선다

'카스게비' 등 글로벌 승인 본격화 **툴젠** 크리스퍼 원천기술 특허 확보 진코어 초소형 가위 플랫폼 개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가 승인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연 구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의약품 및 건강관리제품 규제 기관은 '카스게비' 를 겸상 적혈구 빈혈증과 베타 지중해 빈혈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카스게비'를 개발한 미국 제약 기업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스위스 생명공 학 기업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지난 2015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이들은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유전 자 가위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활용하 면 환자의 골수 줄기세포에 있는 결함 이 있는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 유전 자 가위로 해당 DNA를 수정한 후 환 자에게 다시 주입해 정상적인 적혈구 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겸상 적혈 구 빈혈증 환자의 경우, 적혈구가 겸상

(낫모양)으로 변형되면서 정상적인 적 혈구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영국 당국의 승인으로 인해 의 료계는 평생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거 나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 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엑사셀' (카스게비의 미국 브랜드명) 사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대표적으로툴젠이크리 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에 대한 특 허를 확보하고 있다. 툴젠은 지난 2016 년부터 크리스퍼 기술 관련 포트폴리 오를 강화해 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 내에서 7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특히 이 회사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종자 개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들에 주력했다. 그 결과 툴젠은 몬산토. 써모 피셔, 키진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툴젠은 지난 10월 미국 식품 의약국에 'TGT-001'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TGT-001' 은 'CMT1A'에 대한 유전자 교정 치료

툴젠에 따르면 유전성 말초신경질환 인 샤르코 마리 투스병 환자의 약 40% 가 'CMT1A형' 환자다. 이는 'PMP 22'라는 유전자 서열의 중복으로 인한 단백질의 과발현을 원인으로 한다.

이에 따라 툴젠은 과발현을 정상 수 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유전지를 교정하 는 기술을 바탕으로 임상에 나설 방침 이다. 현재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 전략 에 대한 검증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진코 어는 초소형 유전자가위 플랫폼 기술 을 개발했다. 진코어 또한 독보적인 유 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교정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회사는 올해 1월에는 미국 보스턴 소재 제약사에 약 4500억원 규모로 기 술을 수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진코어가 개발 중인 헌팅 턴병 유전자치료제가 국가신약개발사 업단의 2023년 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유효물질단계 연구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생활건강은 오는 22일까지 서울 영등포에 있는 '더현대 서울'에서 '어글리 러블리' 팝업 매 장을 운영한다.

LG생건, '어글리 러블리' 론칭

못난이 농작물·부산물 원료 활용 기초화장품 등 제품군 확대 방침

LG생활건강이 가려졌던 진정한 가 치를 재조명하는 최근 소비 현상에 발 맞추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브랜드 '어글리 러블 리'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어글리 러블리'는 못난이 농작물과 부 산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화장품 원료 로 활용한다.

기존 못난이 농작물은 흠집이 있거 나 모양이 찌그러져 상품화되지 못했 지만 맛과 영양 등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못난이 농 작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못난이' 생김 새도 살려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어글리 러블리' 신제품 5종을 출 시했다. 바른 뒤 씻어내는 제형의 워시

오프 마스크팩 2종, 슬리핑팩 1종, 시 트마스크 2종 등이 있다.

대표 제품인 '피그 마스크'는 전남 함평의 못난이 무화과 추출물과 식품 부산물인 호두 껍질, 살구씨 등을 갈아 넣은 원료를 함유했다. 또 '유자 마스 크'는 전남 고흥에서 재배한 못난이 유 자 추출물을 비롯해 비타민C, 나이아 신아마이드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 다.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LG생활 건강은 성분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지 속 가능성을 적용했다. 마스크팩의 경 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용기를 사용했으며 시트 마스크 포장재는 재 생 플라스틱을 48% 활용했다.

LG생활건강은 향후에도 기초 화장 품, 입술이나 손을 관리하는 제품 등으 로 '어글리 러블리' 제품군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2024년도 리드그룹 위촉

2022년 이어 두번째 선정

한국콜마홀딩스가 ESG 경영에 앞 장서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는지난16일유엔글 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한 '2023코리아리더스서밋'에서 '2024년 도 리드그룹'으로 위촉됐다고 지난 17 일 밝혔다. 이는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유엔산하기구인유엔글로벌콤팩트한 국협회는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을 확산 하기 위해 매년 선도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유엔글로벌콤팩 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 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실천할 방 침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이어왔다. 그 결과 최근 ESG 평가 및 데이터 분석기관인 서스틴베 스트의 '2023년 하반기 기업 ESG 성과 평가'에서 규모등급(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과 전체등급에서 각각 최고등 급인 AA를 획득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한국ESG기준 원에서 주관하는 ESG 통합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6월 ESG 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집약한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1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2023 코리아리더스 서밋'에서 반기문 전 유 엔사무총장(왼쪽), 안병준 한국콜마홀딩스 대 표이사(가운데),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 국협회장(오른쪽)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

발간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제1회 자 율준수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지 난 2022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인증도 획득했다. /이청하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ISO 37301 인증

"합병 법인에서도 인증 유지 방침"

셀트리온헬스케어가전세계의약품 시장에서 ESG 경영을 강화해 신뢰도 를 높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영국왕립표준 협회로부터 'ISO 37301' 인증을 획득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회사가 받은 분야는 ▲회계 및 세무 ▲공정거래 ▲부패방지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노동법 ▲IT 등 총 7개 분야다.

'ISO 37301'은 준법 경영 평가의 척 도로 전 세계 ESG 평가 기관에서 활용 되고 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 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셀트 다.



에서 열린 '셀트리온헬스케어 ISO 37301 국 제표준 인증 수여식'에서 김형기 셀트리온헬 스케어 대표이사(오른쪽)와 임성환 영국왕립 표준협회 한국지사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의 합병이 완료된 후에도 합병 법인의 판매 및 마 케팅 조직에서 동일한 영역에 대한 인 증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 /이청하 기자

웨스틴 조선 서울

J&워너브러더스 특별전

웨스틴조선서울은오는2024년2월 29일까지 'J&워너브러더스 100주년 셀러브레이션'을 선보인다고 19일 밝 혔다. 이는 '워너브러더스 100주년 셀 러브레이션' 특별전을 관람하며 호캉 스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워너브러더스 100주년 셀러브 레이션'은 오는 18일부터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뮤지엄 전시1관에서 열 린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워너브 러더스의 장르를 불문한 명작들과 관련 된 다양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워너 브러더스를 상징하는 워터타워를 비롯 해 해리포터의 위저딩 월드, 배트맨과 원더우먼의 DC코믹스, 루니 툰과 톰과 제리의 애니메이션 존, 프렌즈와 같은 티비시리즈 존등이 있다. /이청하기자

이랜드몰, '블랙 프라이스' 돌입

매일 0원 래플 이벤트

이랜드 공식 온라인 패션 스토어 '이 랜드몰(ELANDMALL)'은 '블랙 프 라이스' 행사를 20일부터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대 규모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Bla ck Friday)'를 모티브로 하는 행사 다. 이랜드몰은 다가오는 연말 및 크리 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고객들에게 풍 성한 혜택과 함께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전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파오, 미쏘, 로엠, 클라비스, 후아유, 슈펜 등 이랜드 대 표 브랜드와 함께 나이키, 어그 등 겨울 에 입고 신기 좋은 다채로운 브랜드도

만나볼 수 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및 홈 파티 시즌을 위한 주얼리 상품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랜드몰은 이번 행사를 기념해 풍 성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행사기간 동 안 매일 0원 래플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랜드몰 '블랙 프라이스'는 미국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은 프라다, 메 종마르지엘라, 아크네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상품을 0원으로 구매할 수 있 다. 또한, 한정수량을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릴레이 원데이', 신규 가입고 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 등 다양한 프로 모션을 만나볼 수 있다.

> 한편, 이랜드몰 '블랙 프라이스' 행사 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이랜드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섬, '지역사회공헌 기업' 선정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 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보건복지부 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 하는 제도로, 지역사회·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

고 있다.

한섬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월세 지 원 및 교육활동비 후원, 독거어르신 및 취약중장년가구식비지원, 장애인근 로자 봉제 기술 교육 재능기부 등 지속 적으로소외계층을발굴하고지원함으 로써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 고 있다. /신원선 기자





BNK부산은행, 부산엑스포 기원 환경정화 봉사

BNK부산은행은 지난 18일 2030 세계박람회 선정을 열흘 앞두고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서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500여명의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이 참여해 부산시청 녹음 광장을 비롯한 ▲감천문화마을 ▲영도 중리해변 ▲범일동 진성공원 등 부산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대표 지역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금투협, 자선야구대회 성황… 유진투자증권 우승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야구장에서 '제10회 금융투자협회장배 자선야구대회' 결승전과 폐막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세 개 리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1부인 금융리그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첫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하나증권'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투자리그 우승은 '현대차증권', 준우승은 'SK증권'에게 돌아갔다. 성장리그에서는 'BNK투자증권'이 우승, '삼성증권'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순천향대,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순천향대학교는 17일 교내 동아홀에서 '간호학과 개설 30 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날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총동문회, 학부·대학원생 등은 총 1억4000여만원의 발전기금을 내놨다. 이번 행사는 'Achie vement, Accelerating & Challenges를 주제로 ▲기념식▲학술대회 ▲총동문의 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순천향대학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사랑 듬뿍 김장나눔' 행사 참여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2023 사랑 듬뿍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림대강남성 심병원 나눔봉사단을 비롯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지역주민 등 봉사자 280여 명이 함께 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울산대, '공작기계 창의 공모전' 장관상 수상

울산대학교는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학생들이 팀을 이뤄 제 안한 아이디어가 한국 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최한 '제15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인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 예은·정형준·전은채 지도교수·안재영·손동군 /울산대

'공동폭행죄' 판단 기준



김 지 희 _{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의 죄를 범한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이른바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를질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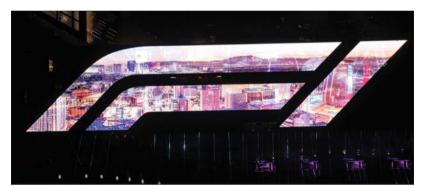
3명이 같이 모여 1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1명은 그 폭행 장 면을 촬영할 것을 계획했다. 실제로 도 1명만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나 머지 2명은 그 자리에서 폭행장면을 촬영하거나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경우 위 3명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 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것 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 폭행)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1명만 폭행하고, 나머지 2명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 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 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 이 불과한 경우라면 폭력행위처벌 법 위반(공동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폭력행 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수인 사이에 공 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 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폭행 의 범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 도 나머지 한명이라도 그와 같이 범 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사건에서는 3명이 모여 범행을 계획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공동 폭행이 아닌 단독폭행을 계획했고, 실제로 범죄현장에서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러므 로 실제 폭행을 저지른 1명에 대한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나머지 2명에 대한 폭행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위 3명에게 2명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 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 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 을 공모하고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 렀어야 한다. 만약 이 사안에서 1명 만 더 폭행에 가담했다면 나머지 공 모자에게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 립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포뮬러 원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2023(Form ula 1 Las Vegas Grand Prix 2023)'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초대형 스마트LED 사이니지의 모습. /삼성전자

삼성, 美 'F1 그랑프리' 빛냈다

스마트 LED 사이니지 공급 태양 빛 아래서도 8000니트 밝기

'포뮬러 원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2023(Formula 1 Las Vegas Grand Prix 2023)'에 삼성전자의 초대형 스마트LED 사이니지가 걸렸다.

삼성전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포뮬러 원 라스베이거스 그 랑프리 2023'에 삼성 스마트 LED 사이니지를 공급했다.

이번 F1 그랑프리는 41년만에 라스

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삼성 전자는 경기장 전역에 설치한 디스플 레이로 레이싱 영상을 송출했다.

특히 F1 경기장 빌딩 루프톱에 수 평으로 설치한 총면적 약 2617㎡ 규모로고 LED 사이니지가 압권이었다. 약 147m에 달하는 축구 경기장보다 긴 크기에도 태양 빛 아래에서도 최대 밝기 8000니트, HDR10+기술을 탑재했다.

삼성전자가 그랑프리에 공급한 총 LED 모듈은 2만5000여개다.

/김서현 기자 seoh@

LG전자, 한빛예술단 초청 연주회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모색

LG전자가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빛예술단 초청연주회를 연다.

한빛예술단은 전원 시각장애인 들로 구성된 예술단으로, 지휘자와 악보 없이 단원들이 곡을 외우고 서 로 호흡을 맞춰 관현악 합주를 펼친 다. 이번 공연은 연주, 강의, 체험이 합쳐진 것으로 연주회 사이에 시각 장애인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강연 이나 수화, 화면해설 등 체험을 곁 들인다.

이번 초청 연주회는 LG사이언스 파크 근무 임직원을 위해 마련됐다. LG전자는 지난 7월과 10월에도 경 남 창원 LG스마트파크와 서초R& D캠퍼스에 한빛예술단을 초청해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겸한 연주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이우기 인하대 교수, 특허청장상 수상

생성형 AI 디퓨전 모델 다뤄

인하대학교는 이우기 산업경영 공학과교수(사진)가한국지식재산 교육연구학회의 2023년도 하계 학 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자료 로 특허청장상을 받았다고 19일 밝 혔다.

이우기 교수는 인하대 권민지 B K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전공 대학원생, 김찬영·이건휘 산업경영공학과 학생과 함께 '딥러닝을 이용한실시간 음성 복제 시스템을 주제의논문으로 수상했다.

또한 '디뷰전 모델에서 오류 데이



터를 통한 생성 모 델의 구조적 원리 와취약성(Unveil ing the Generati ve Challenges o f Diffusion Mod

els through Corrupted Data)'이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12월 미 국에서 열리는 NeurIPS 학술대회 에 논문이 채택됐다.

이러한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중 가장 각광 받고있는 디퓨전 모델의 원천적 특징과 구조적 취약 성을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현전 기자 lhi@

CU, 장애인 위한 '착한 픽업' 서비스

BGF리테일, '착한 기술 앱' 제휴

CU를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사)착한기술융합사회의 '착한 기술앱'과 제휴를 맺고 휠체어 이 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픽 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 혔다.

지난 2021년 설립된 착한기술융합사회(GTCS)는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융합기술 정책과 기술개발 연구를수행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사단법인이다.

이들이 론칭한 착한 기술 앱은 매 장 입구에 문턱이나 계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동장애가 있는 장애 인, 정보부족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



CU가 착한 기술 앱과 제휴를 맺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픽업 서 비스를 도입한다. /BGF리테일

된 시·청각 장애인 등이 매장 출입 없이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픽 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어플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사전 주문한 후가까운 CU에서 '차 안 픽업' 또는 '매장 앞 픽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서울커뮤니케이션스** △본부장 안 형준

부음

▲이병규(전 금융감독원 금융지도국 장)씨 별세, 조용자씨 남편상, 이정규 (현대해상 감사파트 수석)·이수연(워싱 턴주립대 식품과학과 교수)씨 부친상, 류미경씨시부상, 이영수(워싱턴주립대 생명공학과 교수)씨 장인상 = 19일 오 전 5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 식장 특2호실, 발인 21일 정오. 02-2227-7500

▲김선남씨별세, 김경민(매일경제신문 매경이코노미 차장)·김경표(마이엠수 학학원)씨 부친상, 이미숙(진산중학 교)·최현덕(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씨 시부상 = 18일 오후 8시 50분, 고려대구로병원장례식장 201호 실, 발인 21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전북 순창 선영. 02-857-0444

▲김석만씨별세, 변창훈(대구한의대학교 총장)씨 장인상 = 18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6호, 20일 오전 6시40분, 청아공원, 053-819-1001

종이컵·종이빨대와 '표심'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 습니다.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 제보단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습 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임상준차관이 '일회용품관 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로 당초 오는 24일 부터 예정됐던 음식점 및 카페에서의 종이 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아예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앞으로 음식점에선 손님들에게 종이컵 을. 카페에서 종이빨대가 아닌 플라스틱빨 대 등을 제공해도 불법이 아니다. 과태료 도 없고 단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플라스틱빨대의 대체품인 종 이빨대. 생분해성빨대 등의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4년 전부터 예고했던 정부 정책이 순식 간에 바뀌면서 현장은 양쪽으로 갈렸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내 고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 기간을 연장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공연을 비롯해 프래차이즈 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의 단체는 관 련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터였다.

정부도 이번에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상 공인 부담 해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론자들은 반대 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지키 기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정 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시행 예고에 맞춰 플라스틱빨대 대신 종이빨대 등을 이미 들여놓고 준비를 하던 프랜차이즈나 소상공인들도 황당하 긴 마찬가지다. 정부의 기존 친환경 정책 에 따라 관련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스 타트업 등도 복병을 만났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언론에 쓴 기고 문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쓰레기를 줄

이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규제가 뒷받침 안 된 자발적 참여는 공허하다"며 "환경부 는 환경을 지키려 싸우는 곳이다. 국민 환 심을 사는 정치,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실제 종이컵, 종이빨대를 놓고 벌어진 이번 정책 번복 사태를 놓고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 고 있다.

이들 제품과 직접적 연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이에 앞서 연출된 또다른 풍경이 오버랩된다.

지난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역으로선 처음 참석한 일이 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에 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 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와 소상공인·자영업 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에 고 스란히 반영한 환경부의 결정이 내년 총선 에서 여당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한 번 지켜볼 일이다.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8일)



36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고 큰 것을 포기한다. 48년생 형제의 의가 좋아야 하늘로부 터 얻어지는 것이 발생. 60년생 즐거움에 도취하다 차랑 조심. 72년생 신용을 지켜 내일을 얻어라. 84년생 남에게 받은 은덕을 나도 베풀어야.



37년생 투자의 진로변경은 신중하게. 49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61년 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긴축재정이 필요. 73년생 결심이 흐지부지되니 일찍 일어 나서 빨리 움직여라. 85년생 세월 앞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



3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50년생 좀 부족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 는다. 62년생 이미 시작한 일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74년생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 하다. 86년생 부부가 한평생 화합해야 가정의 발전이 있다.



39년생 평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준다. **51년생**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음. **63년생** 이익만을 보고 달리면 결국 손해. **75년생** 한 끗 차이가 하늘이 무너질 것같이 아쉽다. **87년생** 정확하여야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



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주변부터 살펴라. 76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88년생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4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52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64



41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올 것. 53년생 좋은 결과는 시작의 선택에서 비 롯된다. **65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77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 도 두드리고 건너라. 89년생 여전히 백미처럼 뛰어나다.



42년생 재산을 마음은 별이라도 딸 듯이 주고 싶으나 계산하고 가자. 54년생 오후 차 량접촉사고 조심. 66년생 바람이 그칠 생각이 없다. 78년생 늘 대기만성(大器晚成) 을 기억. 90년생 생각한 일들이 꼭꼭 맞는데 부모님 교육 덕이다.



43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파도치면 지워진다. 55년생 마음을 정갈히 하고 원하는 바를 명상으로. 67년생 돛단배 가듯이 하루가 순조롭다. 79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나 보관하라. 91년생 할 일 없이 실업자 신세



44년생 현재를 파악해야 남은 내 갈 길이 보인다. 56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뜸 들이 지 않는 빠른 결정이 필요. 68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80년생 이사계 약서는 주인을 확인하고 할 것. 92년생 돈에 관심이 없다면 늦게 후회.



45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57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69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했는데. 81년생 승진이 어려워도 내일을 응원하자. 93년생 대낮에 꿈을 꾸니 망상이려나



46년생 명예가 높아지고 축하도 받는 날이다. 58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에도 나 가보자. **70년생**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화는 기본이다. **82년생** 앞날이 창창하니 힘내도록. **94년생** 작은 내 것에 욕심내다 손실을 보니 마음도 처량하다.



47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올리지 마라. 59년생 주식투자손실로 나뭇가지가 늘어지듯 한숨만. **71년생** 돌아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83년생** 지나친 교만은 혼 자 고독하다. **95년생**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다면 공부로 실력을.



김상회의 四季

역사에서 배우기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탄생시킨 우리나라 부동산은 하락이 없었던 것처 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도 급락이라는 흑역사가 있다. 눈에 뜨이는 급락은 네 번 정도인데 그중 하나가 1990년대 초반이다. 1기 신도 시 개발이 본격화하고 입주를 시작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1990년대 후반 에는 외환위기가 부동산 급락을 불렀다. IMF라고 부르는 외환위기가 몰 아닥쳤을 때 집값은 말 그대로 폭락했다. 연이은 기업 부도와 대량실업으 로 가계소득이 뚝 떨어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사태가 원인이었다. 급한 지경에 처한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2기 신도시 입주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2010년 전후에 는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입주로 공급이 늘면서 하락세를 탔다. 부동산 하 락이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요한 점은 하락 뒤에 항상 다시 상 승했다는 것이다. 예전의 사례를 공부하고 상승 시기를 점친 사람들은 생 각 이상의 큰돈을 벌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역사에서 배우지 못 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이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남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전의 상황이 앞으로도 그대로 벌어질 거라 고 단정하란 얘긴 아니다. 부동산 투자는 거액이 들어가기에 항상 조심 해야 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팔자상담을 할 때도 과거에서 배우라는 말을 해줄 때가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데도 계속 위기에 처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를 자초한다. 살면서 하나 의 지혜만 얻어도 사는 게 달라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	206 2002년5월28일	제53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	0111 2017년3월09일	일 제141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늘어나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에 뒤늦은 대처



기지 수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한 봉지에 5개가 들어있던 핫도그가 4 개로 줄어들었고, 김은 10장이 들어있던 것이 9장으로 줄었다. 가격은 올리지 않은 채 대신 식품의 용량을 줄인 것이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 n)' 전략이 눈총을 사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이 전략은 가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식품의 내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변화 를 인지하기 어렵다. 가격이 오르는 것에 품업계가 슈링크플레이션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정부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비용과 재료비 원가도 오를 대로 오른 상황.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 용이 오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 만, 대놓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정부와 여 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 용량 을 줄이거나 조금 더 저렴한 원재료를 사 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풀무원은 '탱글뽀득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였고, 동원F&B는 양반김 중량을 5g에서 4.5g으로 줄였다. 참치 통조 림 용량도 100g에서 90 g으로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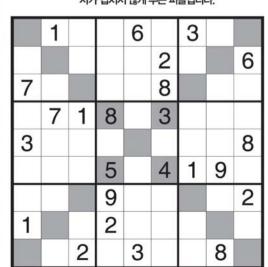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것은 사 실이지만, 어물적 용량을 줄이는 것은 향 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 후에 더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믿고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식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중량이 줄었거나

재료의 원산지가 바뀌었을 때 배신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까. 가격이 올라도 구매 가치가 있는 품목 이면 구매하는 게 시장 이치다.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이 성행하고 있 지만, 기업 탓만 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 에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거나 소지 바들에게 용량을 줄였다는 것을 고지해야 하는 법안은 없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그저 방관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정부에게도 책임은 있다.

사례가 늘자 뒤늦게 정부는 공정거래위 원회와 함께 가이드라인 방안을 검토하겠 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기업 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선택하기까지 어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간에 1부터 9의 숫 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손호성

http://www.argo9.com

서울시, 모아주택·타운 통합심의 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기대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환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확대 소위원회로 신속 심의 진행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 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 도시계획 분야 뿐 아니라 경관·교통·재 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 합심의위원회로 변경해 건축·도시계 회·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분야위원 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축·도시계획 등을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시 사업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다수 포함된 소규모 사업장은 5~10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 해 신속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 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 기 간을 2개월 이상 추가 단축했다.

한병용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공급에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세대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금 추세라면 2026년 3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1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예술회관역 사거리 일대에 첫 눈이 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폭설 대비 보도 · 이면도로 제설 강화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 운영 맞춤형 장비·도로열선 추가

서울시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차도뿐 아니라 보도·이면도로 제설을 강화하고 도로 열선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제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간 '겨 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차도 위주의 제설로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보도·이면도로 제설에 차도 수준으로 인력등을 투입한다. 기존 인력·수작업 제설 방식에서 맞춤형 장비를 대폭 투입한 '기계식 제설'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보도·이면도로 제설장비 300여대를 추가 도입해 총 500여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제설 작업을 지원한다. 폭설시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보도용 제설장비를 통한 제설작업 지원에 나설계획이다.

한파와 폭설로 차도에 얼어붙은 눈도 효과적으로 확실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의 장비도 강화한다. 도로 파손의 우려가 적으면서도 제설효과가 높은 '고강도 고무삽날'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설차량에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 제설차량 383대 전량에 고강도 고무삽날을 장착하여, 2단계 대설주의보 이상의 제설작업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제설취약구간에 는 초기 제설 효과가 높은 자동제설장 비를 확대 설치한다. 도로열선 200개 소, 염수분사장치 41개소 등을 경사로, 응달진 곳 등에 새롭게 설치해 총 844 개소의 자동제설장비를 운영,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도로열선은 강설 시 감지센서가 작 동해 도로에 매설된 발열선으로 눈을 녹이는 장치로, 200개소에 추가 설치해 총 442개소에 운영한다.

터널, 지하차도 진출입로 등 도로구 조상 결빙의 우려가 높은 21개소에 대 해서는 '사고예방 경고시스템'을 설치 해 운영한다. 도로 주변 환경을 분석해 결빙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차량속 도를 운전자에게 알려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설작업의신속성과연속성을높이기 위해 '이동식 전진기지' 66개소를 주요거점에 설치 운영한다. 제설장비와 제설제를 신속히 투입·보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존 전진기지 80개소와 함께 총 146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수능 가채점 결과로 입시 전략 구성해야"

면접 등 대학별고사 앞두고 있다면 수능 점수 따라 수시·정시 중 결정 정시 목표 시, 영역별 성적 구조 파악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된다. 입시전문가들은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은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한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한다.

◆ 수능 직후 신속하게 가채점 진행해 '정시 지원 가능선' 파악해야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 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기 위해서 다. 수시모집에 응시한 대학에 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 기회는 박탈된다. 이번 수능 성적이 좋 아 앞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상위 권 대학으로 정시 합격이 가능한 경우 수시 전형에 응시하기보다 정시에 도 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가채점은 영역별 원점수, 예상 등급 은 물론 예상 표준점수, 백분위, 상위 누적 백분위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면 가채점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영역별 등급컷이 입시기관마다다를 수 있으니 여러 기관 발표를 종합해 살펴보는 게 좋다.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애매할 경우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선택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이더라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기준은 수능 가채점 성적이다.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과 자신의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입시기관 제공 종이배치표는 각 대학 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점수'가 기준이므로 실제 대학별 유불리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세밀하게 정시 지원 가능선을 점검하고 싶다면 종이 배치표, 온라인 배치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라며 "정시 지원 가능선을 확인했을 때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보다 더 높거나 선호하는 대학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피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면 응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정시 지원 전략 구상해야"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기로 했거 나, 정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 라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금 부터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때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기 성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면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학과로 지원을 고려해 볼수 있다. 과탐 II 과목을 선택했다면 과탐 II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학과를 지원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일부 대학의 경우 3개 또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며 "그러므로 하위권 학생들은 본인 수능영역별 성적을 잘 파악해 유리한 대학을 찾아 도전해 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때 정시 지원 가능선을 기준으로 상향에서 하향 대학 및 학과를 군별로 5개 이상 찾아보라고 추천했다. 이후 각 대학의 수능 평가 방식을확인해 자신의 유불리를 가늠해 보는방식이다.

파주시 캠핑장, 공공 우수 야영장 선정

별난독서문화체험장, 특색경험 제공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 광공사에서 발표한 2023년 공공 우수 야영장에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캠핑 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은 급격히 증가하는캠핑이용객의 다양한수요에 대응해양질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야영장을 발굴하여 야영장의 질적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7개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가족(어린이) 친화 ▲무장애 ▲반려
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안전, 위생기준 등에 대한 조건을 부합
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
장평가를 실시해 20개소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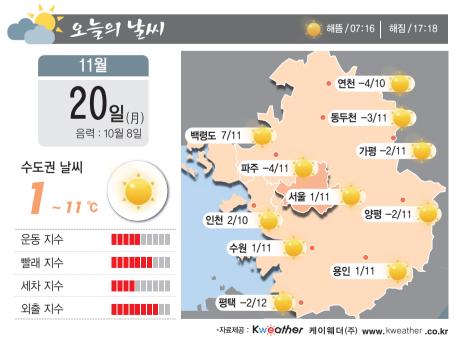
가족(어린이) 친화 부분에 선정된 별



야영장 전경.

난독서문화체험장캠핑장은 폐교된 금 곡초등학교를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 터 대부받아 활용한 교육 체험시설로, 캠핑장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독서 와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 합문화공간이다.

그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문화 재단, 파주문화재단 등과 연계한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영화와 음악, 독서가 함께하는 특색 있는 경험을 제공해 이용객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기자 ask9990@





▲美트럼프 "백악관 복귀하면 첫날 바이든 추진 IPEF 폐기할 것" /사진 뉴시스 ▲美바이든 "'팔' 자치정부가 가자・요

르단강서안 함께 통치해야"

▲"이·하마스, 교전중지 잠정합의"··· 백악관 "아직 합의없어"

키던 부대와 통신두절"

▲하마스, '이'군 폭격으로 "인질들 지



- ▲러시아서 온라인범죄 발생 비율 사상 최고치…전체 범죄의 33%
- ▲中·파키스탄, 사상 최대 해상훈련 종 료…아라비아해 첫 합동순찰 /사진 뉴시스



삼성생명 3분기 누적 순익 1.5조 생보사 자존심 지켰다



건강관리 소비자 잡아라 **Life** 식품업계 '오트' 출시





"맛과 디자인에 행복해하는 고객들로 힘 얻어요"



노티드 도넛 조 정 현 GFFG R&D 매니저

매장서 3년 반, R&D 2년째 근무 각종 베이커리 메뉴들 기획·개발

고객들 피드백 듣고 신메뉴 반영 도넛디자인 영감 다양한 곳서 얻어 "예쁜 베이커리 디저트 만들고 싶어"

형형색색 포근한 파스텔톤의 색감과 아 기자기한 디자인, 도넛 속 꽉 찬 크림으로 유명한 노티드 도넛은 GFFG 베이커리 R &D 팀에서 탄생했다. 특히 노티드 도넛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조정현 GFFG R& D 매니저를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조정현 매니저는 노티드 도넛 매장에서 3년 반 근무하고 R&D 팀에서 근무한지 2 년째로 노티드 도넛과 컵케이크, 각종 베이커리 메뉴를 담당해 기획·개발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 학창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학과 선택 때 '제과제빵'쪽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베이킹에 큰 꿈을 갖고 GFFG에 입사, 노티드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R&D 팀에 오기 전에는 도산공원 1호점 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집에서 매장까지 거리가 멀어 새벽 4시에 기상해야 했었는데, 약 3년 동안 그렇게 출퇴근을 했어요. 피곤하거나 힘들다는 투정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보람이 컸습니다. 제 꿈을 위해 체력적으로 힘들



조정현 GFFG R&D 매니저.

류하게 됐어요."

어도 견딜 수 있던 것 같아요. 매장 규모가 늘면서 관리자(팀장)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후에 운이 좋게 R&D 팀에 합

도넛과 컵케이크를 개발하면서 가장 신 경쓰는 부분은 맛이다. 조 매니저는 "출시 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듣고 다음 제품을 개발할 때 반영한다"며 "고객 들의 의견과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고려해

상품을 기획한다"고 말했다.

남녀노소호불호 없이 잘 팔리는 제품은 '우유생크림 도넛'이다. 쑥과 인절미, 흑임 자 등을 베이스로 한 도넛은 중장년층들도 많이 찾는다. 보통 한 가지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달이다. 완성되기까지 주기적으로 맛 보고 당도 조절을 해서 전체적인 맛 조절 과정을 거친다. 크림도넛의 원조격인 노티드 도넛은 압도적인 맛과 양의 크림을 자랑한다. 크림 제형이나 맛 조절은 어렵지 않지만, 곰돌이나 꽃 등 도넛의 디자인에 따른 어려움은 있다고.

노티드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캐릭 터 IP가 차별점이다. 노티드는 2017년 신 사동 작은 도넛가게를 오픈한 지약 6년 만에 매출 500억원대 규모 외식브랜드로 급성장했다.

/손진영 기자

노티드의 가파른 성장 비결은 외식업을 넘어 트렌드에 맞춘 브랜드 마케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단순한 도넛 외에 브랜드 만의 감성과 스토링텔링을 선호하는 MZ 세대만 특유의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것. 이를 위해 노티드는 모든 시그니처 캐릭터 자체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면서 브랜 드세계관을 확대하고 있다.

조정현 매니저는 도넛 디자인의 영감을 다양한 곳에서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적인 디자인은 셰프님을 비롯한 팀원들과 회의하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쉬는 날 다양한 디저트 가게를 돌아다니면 서 트렌드를 파악하기도 한다"며 "또 서점 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맛과 소비자들이 선호할만한 디자인 등 모 든 면을 만족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개발해야 하는 점이 힘들지만, 고객들의 반 응을 보고 힘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가장 작업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은 최근 선보였던 2023 LoL 월드 챔피언십 기념 노티드×라이엇 게임즈 한정판 도넛이다.

노티드×라이엇 게임즈 한정판 도넛은 '케인' '하트스틸' 도넛 2종으로 먼저 케인 도넛은 눅진한 누텔라 바닐라 크림과 체리 필링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달콤한 맛과 상 큼한 풍미를 강조했다. 노티드 시그니처 캐릭터 스마일리에 케인의 익살스러운 표 정을 구현했다. 하트스틸 도넛은 노티드의 베스트셀러 우유 생크림을 베이스로 하트 초콜릿 쿠키에 하트스틸 로고를 담아 특별 함을 더했다.

조 매니저는 "원하는 디자인과 맛을 전부 녹인 제품이어서 컬래버 작업하면서도 즐 거웠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브랜드와 컬래 버레이션 제품을 기획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매니저는 입사 후 3년 동안 새벽에 출 근하던 생활 패턴에서는 벗어났지만, 지금 도 제품 개발이나 신제품 교육 등 내부 이 슈가 있을 때에는 일찍 집을 나선다.

"새벽에 출근해 일하고 집에 오면 밤 11 시였던 때도 많았죠. 그 때는 또래 친구들 보다 출근이 빠르니까 저만 바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큰착각이더라고요. 저보다나 이 많으신 분들도 그 시간에 출근하시고 바쁘게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 람이 이 시간에 출근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하자'하면서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가족같은 분위기의 저희 팀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맛있고 예쁜 베이커리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요.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의견 을 조율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 아가야죠."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버스EIII 기가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길저스알렉산더 40점' NBA 오클라 호마시티, 4연승 행진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7개월 만에 필드 복귀 /사진 뉴시스
- ▲英매체 "울버햄튼, 황희찬과 재계약 논의… 협상 긍정적"
- ▲LG 오지환·KIA 박찬호,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



- ▲'U-17 월드컵 전패 탈락'… 변성환 감 독 "책임 나한테 있어"
- ▲A매치 5연승 노리는 클린스만호, 21 일 원정서 중국과 격돌 /사진 뉴시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이번생은 어그 그 드로! 새롭게.이롯게.

자원의 소비가 더 이상 지구의 소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롯데케미칼의 자원선순환 플라스틱 소재 에코시드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플라스틱 시대를 열어갑니다.

> C/O ecoseed